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공무원 문화교양지

2018.06

Vol. 505



HOPE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자.



어느덧 한 해의 전환점을 도는 6월을 맞았습니다. 초여름 내리쬐는 햇볕에 지치지 말고, 못다한 계획들을 잘 실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월간 <교정>이 당신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8년 6월호 (통권 505호) 62권 6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4 포토 이슈
이금로 법무부 차관,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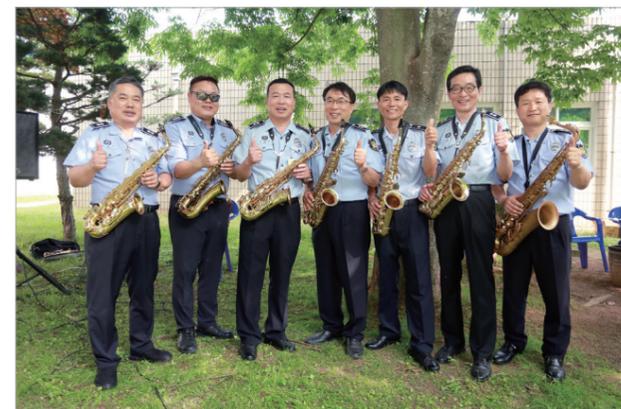
Colorful Think

- 08 Theme Column
6월의 컬러, YELLOW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전하다
- 10 Theme People
담장 안에서 심는 희망의 씨앗
제36회 교정대상 수상자
해남교도소 교감 노달영
- 14 Theme Talk
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모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18 Theme Advice
희망, 삶을 이끄는 동력



Cheerful Life

- 20 교정은 행복을 신고
싱그러운 초록빛을 머금은 야외음악회
군산교도소
- 26 엄마! 어디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
서로의 애정을 추억 속에 새기다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윤경숙 가족
- 30 어느 멋진 날
친구처럼 끈끈한 동료들, 웃음 가득한 연극 나들이
부산교도소 의료과 교위 강화석·마일영·이영동
- 34 패밀리 프로젝트
가족사랑 키워주는 가족여행 떠나요
- 36 히어로 코믹스
판지맨과의 본격적인 결투에 나선 교정맨
- 40 교정 인사이트
여성 종신수들의 감동적인 노래, 감옥에서 희망을 부르다
- 42 BOOK MARK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들



Correction Story

- 44 교정 글마당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김정희
- 46 교정 포커스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
- 50 교정 리포트
핀란드 교정개혁의 전개와 특징(1950-2011)(下)
- 56 지상강좌
교정학
- 58 교정뉴스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 66 교정 스타그램
희망을 담은 사진 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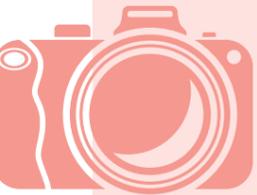


Photo Issue

교정본부는 이번 달에도 많은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발자취를 그려 나갔다. 씬 없이 현장을 살폈으며, 교정선진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또 뜻을 모았다. 그럼 지금부터 그 행적들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이금로 법무부 차관,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지난 5월 9일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교도소의 과밀수용 및 교정시설 재난안전 실태 확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자비 나눔 행사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도 방문하였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설정스님과 함께 심리치료센터, 직업작업장(전기면도기 제작) 등을 참관하고 자비 나눔 행사를 통해 직원과 수용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의정부교도소에 정책현장 격려금을 수여했다.



법무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시행

지난 5월 16일 법무부는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건을 맞이하여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집단난동, 화재 및 도주사고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에서 집단난동과 화재 및 도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정시설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훈련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자위소방대원 170명, 화성소방서 소방관 30명, 화성서부경찰서 기동타격대 10명 등 총 14개 기관 250명이 참가하였으며,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학성 교정본부장, 서승현 화성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장 20여 명이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을 살폈다.



3

제54회 한국교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지난 5월 11일 제54회 한국교정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회장의 개회사, 정성호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축사, 명예회장 감사패 수여가 이어졌으며 서울동부구치소 장선숙 교감과 전남대학교 사회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형주 씨가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교정학회 임원, 발표·토론자, 교정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학술대회는 수용자 인권 개선과 교정선진화를 위한 교정교화청 독립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도화된 교정 정책 부족과 교정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4

제13차 교정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지난 5월 25일 제13차 교정정책자문단 회의가 제주 소망교도소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하태훈 위원장 등 외부위원 11명과 교정기획과장 등 내부위원 3명이 참석했으며, 수용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 추진 현황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 계획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교정정책자문단은 법무부의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교정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전하다

어느 배경에 머무르든 눈에 잘 띄지만, 또 어느 그림과도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색이 있다면 바로 옐로우가 아닐까. 흰색을 제외하고 가장 밝은 기본색인 옐로우는, 온화하면서도 경쾌한 이중적인 속성이 있어 다양한 색과 어우러져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굳이 무엇과 대비되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빛나는 것이다.

● YELLOW

6월의 컬러

세상을 비추는 해를 상징하다

작열하는 태양은 노란색을 띤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지상에 온기를 전달하는 햇빛 역시 노란색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점성술에서 옐로우는 태양을 의미하고 일 년 중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계절인 여름을 상징하기도 한다. 모든 색채 중 명도와 채도가 가장 높아 무채색과의 배색에서 포인트로 자주 사용되는 옐로우는, 수많은 색상 중에서 가장 환한 빛을 발한다.

그 때문일까. 옐로우는 발랄하고 활동적이며,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색으로 분류된다.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위안과 긍정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시선을 집중시키고 명시성이 가장 높아 교통안전 표지나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표시에도 많이 사용된다. 어둠 속에서 자기 빛을 내 안전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옐로우는 그래서 바다 위 등대처럼 우리들을 밝히고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속성이 있다.

진실한 소망을 들어주는 희망의 색

옐로우는 햇빛의 특징을 닮았다. 우울한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데 효과적인 햇빛처럼 옐로우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 보는 것으로 두뇌의 파장을 자극해 운동신경 전반이 활성화되며 잠재된 적극성 또는 긍정성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는 덕분이다. 나아가 뇌신경을 강화해 정확한 사고와 신속한 판단을 돕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림프계를 가동해 우울증도 치료한다.

옐로우는 그러므로 희망이라는 가치와 가장 맞아 있다. 앞이 캄캄해 잘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일례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생활비가 없어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으며, 작품을 그리는 과정에서 노란색을 사용했다고 한다. 사람들에게도 익힌 널리 알려진 <해바라기>나 <노란 집>과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을 때, 그 염원을 실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강렬한 색으로서 옐로우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자리해온 것이다.

깨알 지식

'about YELLOW'

누군가의 귀환을 간곡히 바랄 때 우리는 흔히 '노란 리본'을 매개로 사용한다. 상호뮤직이 출간한 <이야기 팝송 여행, 이야기 상송간초네 여행>에 따르면, 이는 어윈 레빈(I. Levine)과 L. 러셀브라운(L. R. Brown)이 1972년 합작해 발표한 노래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e Oak Tree)'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담장 밖'에서 바라본 교도소는 '희망' 없는 어둠의 공간이었다. 1991년 12월 교도로 임용된 후 27년, 노달영 교감은 '담장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수용자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노달영 교감은 오늘도 담장 안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중이다.

담장 안에서 심는 희망의 씨앗

수용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일

노달영 교감이 처음부터 교도관을 꿈 꿔던 건 아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사명감이나 직업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교도관은 대학교 4학년 취업 준비생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주변의 추천에 시험에 응했고 '딜리' 합격했다. 1991년 12월, 노달영 교감은 그렇게 교도관이 되어 '담장 안'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저 역시 교도소에 들어올 일이 없었어요. 교도소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주변에 교도소에 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범죄자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라는 인식 정도만 있었던 거죠."

첫 출근에 대한 묘한 설렘과 그 출근지가 교도소라는 데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 수용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설렘과 두려움은 사명감으로 변해갔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하는 궁금증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관심으로 바뀌었고, 수용자들을 '담장 밖'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책임감의 무게도 더해졌다. "15척 담장 안에서 수용자들과 생활하면서, 부모의 이혼과 학대, 낮은 교육 수준과 어려운 환경 등 불우했던 유년 시절의 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낙인'보다는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에 마음이 향하기 시작했고, '죄는 용서할 수 없으나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에 담긴 의미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됐죠."

수용자들이 과거에 얽매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랐다. 시작은 편견 없는 '시선'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수용자들에게 다가가는 것. 노달영 교감은 서두르지 않고 수용자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수용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변화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살면서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했던 수용자들에게, 노달영 교감의 인정과 지지는 큰 울림으로 다가갔을 터. '잘 할 수 있다'는 격려와 칭찬에 수용자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교도소에 들어오면 눈빛에 사회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니 미래를 준비할 마음을 갖기는 어렵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희망'이 아른거리는 걸 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 못 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수용자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죠."

제36회
교정대상 수상자
해남교도소
교감

노달영



교도소 안에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믿음

사회복지사 2급, 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 1급 교정전문 상담사, 1급 진로전문 상담사, 1급 가족전문 상담사, 웃음치료사 1급 등은 노달영 교감이 지금까지 취득한 자격증이다. “수용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수용자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틈틈이 공부하며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수용자들을 교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살인 미수죄로 수감 중인 수용자는 노달영 교감의 도움으로 목공 기술을 연마, 전남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분 금상, 교정작품전시회 대상, 전국기능대회 가구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출소 후에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수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수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도 꾸준한 상담을 통해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 수용자는 자동차 정비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는 가석방 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노달영 교감은 전공인 조경 실력을 발휘해 원예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수용자들의 마음에도 ‘희망’이 조금씩 자라더라고요. 생명을 가꾸고 돌보면서 수용자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용동에도 화분을 하나씩 선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달영 교감은 주말마다 선산에 올라 직접 춘란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생명력이 강한 춘란을 키우면서 수용자들의 마음에도 ‘희망’이 싹트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위험 요소가 없는 플라스틱 화분에 춘란을 옮겨 심고, 교도소의 허가도 받았다. 그렇게 목포교도소 수용동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씩 놓이게 됐다. ‘오늘도 조금 자란 것 같지 않냐며 미세한 변화에도 기뻐하는 수용자들의 변화와 성장은 노달영 교감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특히 무기형을 받고 들어와 원망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수용자의 변화는 노달영 교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05년에 처음 만났어요. 1991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시작했으니 교도소 안에서 14년을 보낸 거죠. 고등학교 중퇴 학력이었던 남자는 모든 것이 14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천천히 다가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 번도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그 친구가 고민하기 시작하더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도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으니, 서른이 넘어 다시 시작한 공부가 쉬울 리 없었다. 노달영 교감은 개인적으로 책을 사주고 모르는 것들은 차근차근 가르쳐주며, 끊임없이 지지하고 응원을 보냈다. 과학을 전공했던 아내에게 특별 과외를 받아 그 친구에게 다시 가르쳐 주기도 했다. “변하더라고요. 살기로 가득했던 눈이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는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50살이 넘어서야 출소를 하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나가게 되면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웃기도 하고요.”

노달영 교감의 추천으로 고시반에서 공부를 시작한 그는

“수용자들의 변화와 성장은 노달영 교감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하루에 6시간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공부에 매진했고, 2007년 8월에는 전라남도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서 전남 최고 득점자로 합격했다. 2008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2012년에는 학사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기특하고 대견하죠. 가장 기쁜 건, 그 친구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도 분명 ‘희망’이 존재한다는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게 된 거죠.”

‘담장 안’에서 어렵게 찾은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노달영 교감은 지난 5월 11일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교위에서 교감으로 승진을 했다. 27년을 근무했던 목포교도소를 떠나 해남교도소에서의 새로운 생활도 시작했다. “사실 많이 부끄러워요.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지난 27년을 곱씹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년이 되어 교도복을 벗는 날,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교도관이 됐던 20대의 청년은 교도소 안에 꾸준히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며 ‘교도관이 천직’임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리고 더 좋은 교도관이 되기 위한 ‘배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수용동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수용동으로 들어가 생명을 구했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인증인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실제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살린 사례도 여러 번 있다. 2002년에는 대불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 석사학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년 후에는 ‘담장 밖’에서 수용자들의 삶을 응원하며 살고 싶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수용자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담장 안’에서 어렵게 찾은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말이죠.”

2009년 개청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직업훈련교도소로서 직업훈련 수용자의 밝은 앞날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곳이다. 직업훈련은 물론 수용자들의 마음까지 보듬으며 지난 과거를 떨치고 밝은 미래로 가고자하는 그들의 손을 앞장 서 이끌고 있는 그곳,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다녀와 보았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모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전국 최대 규모의 직업훈련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자리 잡고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서울 인근이지만 꽤나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기관이다. 화물차량이 뚝뚝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도로변 오른쪽 안쪽으로 방향을 트니 비로소 옷이 숨어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나타난다.

2009년도에 개청을 하였으니 내년이면 꼭 10년이 되는 이곳은 전체 수용자가 약 1600여 명, 직원 숫자가 340여 명 정도 되는 곳으로 직업훈련 수용자는 물론, 미결수용자, 형이 확정된 수용자, 여성 수용자들까지 다양한 수용자들을 수용·관리하는 곳이다.

오늘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모인 사람은 보안과 이평섭 교감, 사회복지과 손성훈 교도, 출정과 신창국 교도, 보안과 최민석 교도, 김태성 직업훈련 교사(출장요리 과정), 임중수 직업훈련 교사(전자카드 과정) 등 총 6명이다. 10개월에서 8년까지 이곳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표정은 유독 돈독한 가족애를 자랑한다는 이곳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듯 밝고 건강하다.

“우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한마디로 정예직업훈련교도소입니다. 일반 교정시설과의 차이가 있다면 ‘직업훈련’을 메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죠. 직업훈련교도소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큼니다.”

이곳에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신창국 교도가 차분하게 설명을 한다.



“수용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것은 저희 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막중한 책임

김태성 직업훈련 교사와 임중수 직업훈련 교사는 모두 이곳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베테랑이다. 직업훈련이 추가 되는 교도소인 만큼 이들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수용자를 다루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출장요리를 하기 때문에 조리실에 늘 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내재되어 있어요. 훈련생 중 누군가가 싸우면 실습은 중단됩니다. 수업 중에 문제가 생겨도 칼을 넣고 바로 멈추는 경우가 많죠. 잘 가르치는 것은 물론 항상 분위기를 살피고 조절해야 하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김태성 교사의 설명에 임중수 실장도 동의를 표시한다. “수용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것은 저희 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교육도 시키지만 그 과정에서 인성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평섭 교감은 이를 두고 “교도관들은 구금확보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책임을 다하고 직업훈련 선생님들은 그 외의 부분들을 보완해주어 수용자들의 사건사고가 일반 교소도보다 적게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거둔다.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개설된 훈련과정은 총 26개이다. 전통적인 제과·제빵, 미장, 타일, 특수용접부터 전자카드, 농기계정비, 3D프린팅기계설비, LED 응용전기 등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첨단 직업훈련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 약 800여명의 직업훈련 수용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땀뻘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니 새삼 교도관들과 직업훈련 교사들의 노고가 깊이 와 닿는다.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자격증 취득률이 90%에 달한다는 우수한 직업훈련 실적과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빼어난 성적을 거두어온 실력이지만 사실 그 외에도 자랑거리는 많다.

지난 5월 중순, 화성소방서, 화성시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 수용자 집단난동, 방화, 도주를 대비해 집단난동 진압, 화재초기 진화, 도주자 체포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합동 훈련을 실시하면서 모범적인 훈련으로 관내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제9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배드민턴 대회에서 남자복식, 혼합복식 등을 우승하면서 종합순위 1위로 대망의 우승까지 차지한 것이다. 또 5월 29일에는 LED응용전기공과 박태희 직업훈련 교사가 서울지방교정청 장으로부터 이달의 모범교도관 상까지 수상하니 소 전체가 안팎으로 남다른 능력과 각각의 재주, 사명감을 인정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고 손성훈 교도와 최민석 교도는 말했다.

직업훈련에 최적화된 교도소로서 수용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희망을 향해 한 발짝 더 크게 내딛는 것이 아닐까.

화성의 가 볼만한 곳

화성 공룡알 서식지

화성 공룡알 서식지는 지난 1999년에 발견되었다.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일대에서 시화호 간척지의 육지화에 따른 기초 조사를 벌이던 중 학자들의 눈에 띈 것이다. 바닷물이 막히기 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었던 이 지역의 약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으로 12개 지점의 동지 30여 개에서 200여 개에 달하는 공룡알이 발견되었고 빨리 덮여있는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 세워진 방문자센터에서 관련 3D영상을 비롯 해설사의 설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부도

제부도는 만조 때는 섬이지만, 간조 때가 되면 섬과 육지 사이의 땅이 드러나면서 육지와 연결이 되는 섬이다. 1980년대에 도로를 개설해 자동차로도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주말이면 수많은 인파가 찾는 화성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조개줍기, 갯벌체험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많이 찾으며, 여름에는 제부도 서쪽의 제부도 해수욕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사랑받고 있다. 다만 제부도에 갈 경우에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가야 한다.

Theme Talk

우리의 기쁨, 우리의 희망을 전하다



교감 이평섭

상반기에는 우리 소가 안팎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용자 숫자 대비 직원들의 숫자가 적고 일은 녹록치 않지만, 늘 그러했듯 우리 직원 모두가 서로 돕고 즐겁게 일했으면 합니다. 큰 사고 없이 지나간 상반기처럼 2018년도 하반기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교도 손성훈

우리 소 직원들은 교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조사가 부산, 전주 등 전국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직원들 모두가 아무리 멀어도 각별히 경조사를 챙기는 분위기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다른 가족애가 싹트고 인간관계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교도 신창국

우리 소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방문하고 위로하며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과일이나 음료수를 사갖고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안부 전화도 드립니다. 이처럼 이웃들에게 우리 소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교도 최민석

우리 소는 굉장히 원만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외지에 있고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퇴근 후 술자리를 갖기보다는 직원간 소통을 자주하는 편이에요.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교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또한 작은 행복입니다.



직업훈련 교사 김태성

우리 직업훈련과에서는 한 달에 2번, 인근 요양시설에 우리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빵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써서 모두가 좋아해요. 직원들이 전부 맛있게 드십니다. 이에 수용자들은 큰 보람을 느끼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직업훈련 교사 임중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처한 상황이 모두 제각각인 수용자들을 다 같이 끌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으나 배움에 대한 기회는 누구나 공평하게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멘토·멘티 제도를 만드는 등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찬란히 빛나는 별을 마주할 수도 있고, 높이를 알 수 없는 벼랑 끝에 설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보다 오늘을 값지게 장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희망, 삶을 이끄는 동력

내일을 살게 하는 가치

신학자 티리히는 “희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굳이 이와 같은 명언을 들지 않더라도, 희망이 우리 인간의 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희망이 없는 삶을 가정해 보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인지할 수 없다.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고 혹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을 고통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이끄는 소중한 동력이 곧 희망인 것이다.

‘희망’이라는 가치는 정신이나 심리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희망의 두 가지 주성분인 ‘믿음’과 ‘기대’가 뇌에서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을 분비하게 하고, 이들이 모르핀 효과를 흉내냄으로써 신체의 통증을 억제한다고 한다.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과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반면 절망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뇌의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의 분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통증을 배가하는 콜레사이스토키닌의 분비량은 늘어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희망을 품는 것만으로 보다 건강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작은 목표를
실천하려는 마음이
희망으로 탈바꿈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HOPE

사소한 바람은 희망의 시작이다

희망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루기 쉬운 작은 희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소한 목표나 계획도 희망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 희망의 본질을 꿰뚫는 영화 한 편을 살핀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시도가 실패로 끝나 한강의 밤섬에 불시착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김씨 표류기>는 희망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얘기한다. 한강 밤섬에 떠밀려 죽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이 든 김씨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삶을 잘살아 보자고 결심한다. 그 동력이 바로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작은 짜장라면 스프 봉지다. 짜장라면을 먹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삶의 목표가 되고, 곧 그 일념이 희망이 되어간다. 보잘 것 없는 욕구가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신이 하고 싶은 아주 사소한 것을 리스트로 죽 적어보자.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낙서하듯 끄적거리면 된다. 그 작은 목표를 실천하려는 마음이 곧 삶을 이끄는 희망으로 탈바꿈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이 피어나듯, 희망 역시 작은 것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정은 행복을 믿고
 Happy corrections

탁 트인 전경을 배경 삼은 야외음악회만큼 낭만적인 이벤트가 또 있을까. 그런 무대가 군산교도소의 사무청사 옆 휴식공간에 세워졌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따뜻하고 정다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군산교도소의 음악회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자.

싱그러운 초록빛을 머금은 야외음악회

군산교도소

군산의 풍(豊), 화(和), 격(格)을 갖추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야외음악회 소식에 교정은 행복을 믿고 팀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길을 나섰다. 걱정했던 부분은 날씨였다. 며칠 사이 자주 비가 내렸던 탓에 비가 오진 않을까, 혹은 더워서 직원들이 지치지 않을까,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안고 군산으로 향했다. 다행히 군산교도소에 도착하자 더없이 쾌청한 하늘이 펼쳐졌다. 짙은 녹음에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기도 했다. 이처럼 자연과 벗 삼은 군산교도소의 자태에 교정은 행복을 믿고 팀은 깊이 감탄했다.

이번 교정은 행복을 믿고 팀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윤종웅 교위와 군산교도소 총무과 김재석 교위, 홍성교도소 김종률 교위가 합심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이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황인균 총무과장이다. 황인균 총무과장은 “군산교도소는 직원이 많지 않은 지방교도소로 평소 수용자들뿐만 아니라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산교도소는 직원들의 휴무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황인균 총무과장과 담소를 나누는 교정은 행복을 믿고 팀은 사전에 준비한 대로 이벤트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를 시작으로 군산교도소 직원들을 맞을 준비에 열을 올렸다. 한쪽에서는 교정은 행복을 믿고 팀이 맛있는 다과를 준비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찍 도착한 오늘의 음악가들이 목을 풀고 악기를 매만지며 이벤트에 만전을 기했다.





‘워라벨 색소폰 동호회’를 마음에 저장하다

오늘의 1부로 가장 먼저 무대에 선 그룹은 군산교도소 색소폰 동호회인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다. 워라벨은 이름의 사전적 의미대로 색소폰 연주라는 취미를 통해 삶과 일의 균형을 잡겠다고 나선 당찬 동호회다. 2018년 1월 결성돼 5월 1일 월례회의에서 공연한 후 이번이 두 번째 무대라는 워라벨은 현재 총 8명으로 인원이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이번 교정은 행복을 신고를 계기로 더 많이 연습을 하며 실력을 쌓았다.

워라벨 회원들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는 뜻 깊은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색소폰 동호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늘을 위해 부단히 연습해왔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워라벨이 첫 곡으로 택한 곡은 엘리스 호슨의 ‘희망의 속삭임’이다. 중후하며 부드러운 색소폰의 음색이 무대 위로 흐르고 따뜻한 햇살이 워라벨 회원들을 비추자 한 편의 동화가 펼쳐지는 듯했다. 첫 곡이 끝나자 워라벨 회원들을 향해 큰 박수가

객석에서 쏟아졌다. 워라벨 회원들은 “연습 때보다 부족한 것 같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객석에서는 “정말 잘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워라벨 회원들이 두 번째로 선곡한 음악은 신형원의 ‘개똥벌레’다. 이들은 누구나 아는 대중적인 이 곡을 직원들과 흥겹게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곡을 아는 직원들이 하나 둘씩 노래를 따라 부르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흥겨운 음악은 길을 가던 민원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도 했다.

이어 김충일 교위가 타이타닉의 메인 주제곡 ‘The Power Of Love’를 멋지게 소화해냈고, 채충원 교감이 임재범의 ‘비상’ 연주를 진행하며 1부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워라벨 동호회를 대표하여 이영남 교감은 “소장님이 동호회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앵콜 요청을 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졌던 한마당

2부가 시작되기 전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에서 준비한 막간 퀴즈가 이어졌다.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번쩍 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손을 든 직원들에게 정답을 맞힐 기회가 돌아갔고 그렇게 문제를 맞힌 네 사람이 상품권의 행운을 거머쥘 수 있었다.

2부는 교도관 겸 싱어송라이터 홍성교도소 김종률 교위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초대가수 미라. 그는 금잔디의 ‘오라버니’를 열창해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뜨거운 열기에 이어 진성의 ‘보릿고개’를 구성지게 소화해낸 미라는 관객들의 요청으로 이선희의 ‘인연’을 트로트 감성으로 노래해 박수를 받았다. 미라는 “반응이 없을까

걱정했는데 직원분들이 크게 호응해 주셔서 무사히 공연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김종률 교위였다. 그는 김광석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을 부른 데 이어 Westlife의 ‘You Raise me up’을 색소폰 연주로 소화해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세 번째 공연은 정정자 오카리나리스트의 무대였다. 정정자 오카리나리스트는 “고생하시는 교정공무원 여러분들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 곡에 정성을 쏟겠다”며 포카혼타스 OST ‘바람의 빛깔’을 연주했다. 마음을 정화하는 듯한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로 직원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음악에 심취했다.





길병권 하모니카리스트는 하모니카 연주로 이은하의 '미소를 띠며 떠난 그 모습처럼'을 연주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다. 이어 정정자 오카리나리스트와 길병권 하모니카리스트는 듀엣 '오카랑 하모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무대에 올라 노사연의 '바람'을 연주했다. 본래 듀엣으로도 활동하며 자주 호흡을 맞췄었다는 두 사람은 완벽한 연주를 꾸며 직원들의 심금을 울렸다.

마지막 무대는 군산교도소 김태원 교감의 어머니이기도 한 한은자 국악인의 노래로 꾸며졌다. 한은자 국악인은 선곡한 '진도아리랑'을 부르기에 앞서 공연을 진행하게 된 소감을 찬찬히 밝혔다.

"우리 교정공무원들은 많은 업무로 늘 고생하시잖아요. 이러한 이벤트가 이분들에게 조금의 격려가 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 역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구성진 소리로 국악을 선보인 한은자 국악인은 중간중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넘기기도 하며 보는 이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공연 내내 음악회 무대를 사진으로 담기 바빴던 직원들은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도 오늘 공연의 흥과 여운을 쉬이 잊지 못한 분위기였다.

초록빛으로 물들었던 힐링 타임

오늘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이 준비한 무대는 고급스러운 악기연주부터 신나는 트로트, 흥겨운 국악까지 모두 구성된 그야말로 풍성한 종합음악선물세트였다.

이벤트 기획을 함께한 김재석 교위는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군산교도소 직원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좋았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어서 더없이 보람찼다"고 전했다.

이벤트를 지켜본 우경주 교감 역시 "우리 소의 작은 쉼터에서 공연을 접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었다"며 "우리 직원들의 멋진 색소폰 연주는 물론 초대가수들의 청아한 오카리나와 하모니카 연주, 어깨를 들썩이게 한 아리랑 무대까지 펼쳐져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의 이벤트를 감명 깊게 보았다는 이수현 교위는 "무거운 어깨의 짐을 털고 악기의 선율에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무대는 물론 다과 준비까지 신경 써준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도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크게 박장대소하는 날보다 무표정으로 근무하는 날이 더 많은 교정공무원들. 그러나 오늘날만큼 즐거운 감정을 표현했다는 군산교도소 직원들을 보니 이번 음악 배달도 성공인 듯싶다. 군산교도소의 발전을 기대하며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즐거운 향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교정은 행복을 Happy corrections 기쁨을

군산교도소 음악회

음악으로 직원들에게 추억을 선사한
군산교도소 색소폰 동호회 워라벨과 초대가수들,
그들의 후기를 들어본다.



군산교도소 색소폰 동호회 워라벨

- 복지과 교감 이명남
- 복지과 교감 채종근
- 보안과 교감 김충일
- 직업훈련과 교감 박병일
- 보안과 교감 정종수
- 보안과 교위 임재환
- 보안과 교위 이형수
- 복지과 운전서기 윤석

직원들과 하나 된 무대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원들과 즐거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객석에서 앵콜 요청이 나와 매우 기쁘고요, 연습한 보람이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소장님은 물론, 준비해주신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 그리고 소 내에서 고생해준 총무과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워라벨도 틈틈이 실력을 갈고닦아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가수

- 트로트 가수 미라
- 하모니카리스트 길병권
- 싱어송라이터 교위 김중률
- 오카리나리스트 정정자
- 국악인 한은자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은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어울려야 흥이 나는데, 많은 직원이 호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희의 음악이 교정공무원분들께 힐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희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 서로의 애정을 추억 속에 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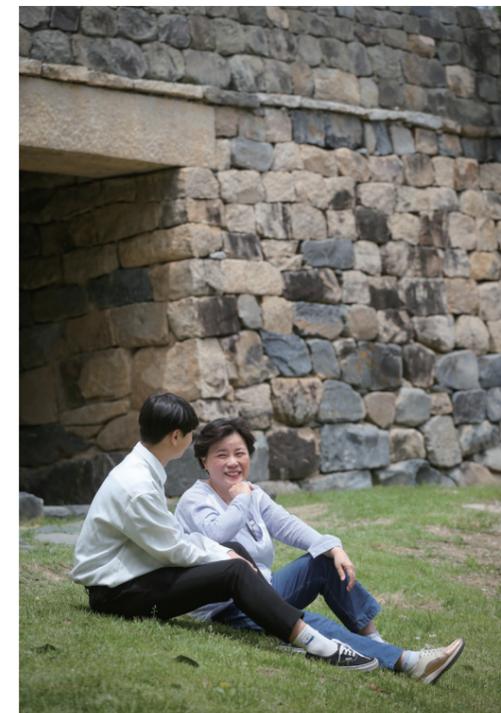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윤경숙 가족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여름이 성큼 다가와 햇볕이 따사롭던 날이었다. '아빠 어디가' 취재팀은 이벤트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충청남도 공주시로 향했다. 이번호는 특별히 아빠가 아닌 '엄마' 윤경숙 교감이 주인공이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윤경숙 교감은 늦둥이 아들과 다름없는 김동진(가명) 군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 이벤트 신청을 했다. 그럼 지금부터 이들이 쌓은 추억의 현장을 따라가 보자.



다시 적는 가족의 정의

윤경숙 교감과 동진의 인연은 약 10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경숙 교감은 공주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여직원들의 동료애가 특히 남달랐었다. 보람 있는 일을 함께하자며 女友會(여우회)를 결성한 여직원들은 쉬는 날 장애인 시설에 가서 물품을 후원하고 이불 빨래와 대청소 등 고된 봉사 활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다 더욱 보람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시청에 부탁해 동진의 멘티가 되어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윤경숙 교감이 청주여자교도소로 전근한 이후에도 인연은 변함이 없다.

윤경숙 교감은 "당시 동진이는 체구가 작은 어린 초등학생이었다"며 "지금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만큼 아이가 성장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진이를 정말 가족으로, 또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결혼과 혈연으로 이어진 법률적인 가족 외에도 다른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동진이는 혈연이 아니지만, 마음으로 기른 아이랍니다. 동진이를 만나면서 저 역시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어요."

훌륭한 학생이 되어 본분을 다하고 있는 동진이 역시 윤경숙 교감을 포함한 공주교도소 여직원들을 '고마운 분들'이라고 표현했다. 공주교도소 이모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동진은 어린 시절 공주교도소 여직원들이 사준 자전거를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로 꼽을 정도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뻐다"고 말하는 동진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모자, 역사를 품은 곳을 함께 걷다

윤경숙 교감과 동진이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공주 시내에 위치한 공주공산성이다. 공주 역사의 한 면이 고스란히 간직된 장소이기도 하다. 윤경숙 교감과 동진이는 공산성의 성곽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장관으로 펼쳐진 숲의 녹음에 함께 감탄하기도 했다.

성벽을 타고 올라가자 금세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다. 그 청량한 기분을 만끽하고 윤경숙 교감과



동진이가 다시 내려오던 그때 공산성 수문장 교대의식이 시작되었다. 늙은 백제의 병사들이 창술 등 다양한 무예 시범을 보이자 동진이는 신기한 듯 지켜봤다. 백제 병사들은 관람객들에게 인사하며 포토타임을 진행했고 윤경숙 교감과 동진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윤경숙 교감과 동진이는 이내 익숙해졌는지 자유롭게 포즈를 취했다.

윤경숙 교감과 동진이의 두 번째 데이트 코스는 공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정식집이다. 연잎밥 정식을 맛보며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연잎의 향을 가득 머금은 찰밥과 다양한 반찬들이 상위로 펼쳐졌다. 근사한 식사에 윤경숙 교감과 동진이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도란도란 대화를 이어갔다.

“전에는 동진이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이모랑 조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머니와 늦둥이 아들인 줄 알아요. 그 시선이 저는 늘 행복해요. 동진이 덕분에 제가 젊어지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다

윤경숙 교감이 마지막 데이트 코스로 택한 곳은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동진이의 바람을 기억한 윤경숙 교감이 마지막 날이 장소로 선택한 장소다. 평소 관찰력이 뛰어나 작은 것에도 집중한다는 동진이는 윤경숙 교감과 함께 오랫동안 나무와 꽃들을 관찰했다. 오랜만에 그대로의 자연을 느낄 수 있어 절로 힐링이 됐다고 흡족해한 두 사람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즐거웠던 하루를 소회했다.

동진이는 “행복한 하루였다”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선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벤트를 신청한 윤경숙 교감 역시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는 동진이와 모처럼만에 행복한 하루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오늘 하루는 저와 동진이가 앞으로 맞이할 삶에 중요한 의미로 남겨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진이가 공주교도소 직원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강조했다.

“오늘은 제가 사연을 보내 대표로 동진이를 만났는데요. 동진이를 지지하는 공주교도소 여직원 모두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진이가 밝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직원들 모두가 동진이에게 또 다른 가족인 셈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나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할 윤경숙 교감과 동진이. 두 사람의 앞날이 따뜻한 시간으로만 채워지길 기대해본다.



TIP

공주공산성

공주공산성은 백제 문주왕 1년(475)에 한산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였다가 성왕 16년(538)에 부여로 천도할 때까지 5대 64년간의 도읍지인 공주를 수호하기 위해 축조되었다.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성내로 86-80(산성동 2)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온실, 동물마을, 야생화원, 연못, 팔각정 등이 있어 산림휴양문화공간 및 자연학습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치 :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 길 110



“아빠! 어디가?”는 교정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월간 <교정>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신청 메일 주소

-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친구처럼 끈끈한 동료들, 웃음 가득한 연극 날들이

〈부산교도소〉 의료과
교위 강화석, 교위 마일영, 교위 이영동

교정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직원들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하는 만큼 동료는 때로 친구보다 더 많이 의지가 되는 존재다. 부산교도소 의료과에도 동료 이상의 관계를 맺은 직원들이 있다. 바로 강화석 교위, 마일영 교위, 이영동 교위가 그 주인공들. 이들이 함께 연극 날들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따라갔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오늘의 이벤트를 신청한 주인공은 부산교도소 의료과의 든든한 만형 강화석 교위다. 그를 만나기 위해 부산의 대표 명소인 용두산공원으로 향했다. 강화석 교위와 이벤트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은 의료과 동료인 마일영 교위와 이영동 교위. 세 사람 모두 근무한 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베테랑 교정공무원들이다.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한 덕분에 힘이 척척 맞는다는 세 사람은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끈끈한 동료애를 드러냈다.

강화석 교위는 “연령대도 비슷하고 오랜 기간을 함께 근무해왔기 때문에 더 각별한 사이”라며 “그럼에도 항상 업무에 쫓기다 보니 서로 대화할 시간도 적고 무언가를 함께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추억을 나누고 싶었다”며 어느 멋진 날의 문을 두드린 이유를 전했다.

실제로 마일영 교위와 이영동 교위에게 강화석 교위는 큰형처럼 늘 든직한 존재다. 막내 이영동 교위는 “강화석 교위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라며 “부산교도소를 지키는 수호천사 같다.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마일영 교위 역시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고 나무랄 것이 전혀 없는 분”이라며 강화석 교위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못했다.

어느 멋진 날은 교정의 아름다운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동료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나 연극이 있다면 지금 아래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 corred2015@naver.com / yw1219@korea.kr



연극이라는 문화와 소통한 시간

의료과는 수용자를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해야 하는 만큼 애로사항이 많다. 평소 의료과에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문자 세 사람이 과거 에피소드를 꺼내놓았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 힘이 들더라고요. 최근 심정지가 온 수용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숨을 쉬게 된 수용자를 보고 뿌듯한 순간도 찰나였습니다. 저희에게 자신을 왜 살렸느냐고 항의하더라고요. 수용자가 자신의 처지로 인해 비관적으로 나오면 정말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이처럼 늘 정신적으로 고된 업무를 맡는 세 사람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코믹멜로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을 관람하기로 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다 같이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연극을 택한 것이다.

극이 시작되기 전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깜짝 이벤트가 펼쳐졌다. 그 이벤트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사람은 다름 아닌 강화석 교위였다. 남자주인공을 맡은 연극배우가 강화석 교위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시도한 것. 강화석 교위는 조금 당황하는가 싶더니 금방 적응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 큰 웃음을 주었다.

연극은 헤어진 남자와 여자가 병원에서 재회하며 그들이 헤어진 과정을 웃음과 함께 담은 작품이었다. 여자를 모르는 남자와 남자의 변해가는 과정이 싫었던 여자의 이야기가 관객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큰 웃음을 주기도 했다. 세 사람이 극에 몰입하던 중 이번에는 마일영 교위가 배우와 소통하게 됐다. 극 중 남자친구와 다툼 슬픔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셔야 했던 여자주인공이 무대에서 관람하고 있는 마일영 교위를 지목하며 흑기사로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소주를 마셔야 했던 마일영 교위는 당황한 듯 하면서도 흑기사 역할을 잘 수행해 박수를 받았다.

연극을 관람한 강화석 교위와 마일영 교위는 극에 참여할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 있다고 평했다. 이영동 교위도 한바탕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 힘이 들더라고요.”

“셋이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동료애를 다지리라는 약속

이벤트를 마친 세 사람은 앞으로도 동료애를 다지며 일할 것을 약속했다. 마일영 교위는 “서로 배려하고 돈독하게 동고동락하는 지금 이대료가 좋다”며 “이런 상태를 부산 사투리로 ‘장 이대로’라고 하는데 ‘장 이대로’ 계속 동료애가 유지되면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영동 교위 역시 다르지 않은 대답을 내놓았다.

“강화석 교위님은 퇴직까지 약 5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는데요. 꼭 진급하셔서 박수 받고 퇴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마일영 교위님은 지금처럼 좋은 풍채를 유지하시길 소망합니다.(웃음) 늘 웃음을 주시고 솔선수범하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화석 교위 역시 두 사람을 향한 애정을 전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의료과에서는 제가 제일 선배인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부산교도소 의료과 업무를 든든히 책임져줄 것이라고 믿기에 늘 든든합니다. 우리 마일영 교위, 이영동 교위에게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동료보다는 형제처럼 느껴지는 세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헤아리고 함께 존중하는 듯했다. 앞으로도 강화석 교위와 마일영 교위, 이영동 교위가 끈끈한 동료애를 다져가길 기대해본다.

교위 강화석

두 후배들과 함께 해보지 않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문화생활은 보는 것에만 치중했는데 오늘은 직접 소통을 하게 돼서 더욱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교정공무원들에게 이런 문화 체험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사랑 키워주는 가족여행 떠나요

매일 마주하는 가족의 익숙한 얼굴. 하지만 여행을 함께 떠나면 가족의 새로운 면면을 마주할 수 있다. 낯선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순간, 가족 간의 정은 더욱 깊어진다. 다가오는 휴가철에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국내 가족여행을 떠나보자.



어린이 자녀와 함께라면, **감성 속속 오감 여행**

유아 혹은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을 더욱 키워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할 것이다. 가족여행은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한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성을 부여한다. 특히 여행을 떠나 다양한 놀이를 경험한 어린이들은 자기 표현력과 능동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어린이 자녀와 여행을 떠날 때는 촉각과 후각, 시각적으로 다채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여행지가 좋다. 갯벌 체험, 숲 놀이 등의 생태 여행은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다. 갯벌을 만지고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관찰하면서 어린이들은 자연이 선사한 천연 놀이터에서 신나는 하루를 만끽할 수 있다. 갯벌을 무서워하는 아이라면 숲으로 안내해보자. 전국의 유명 자연휴양림에서는 숲을 산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나무 냄새가 물씬 풍기는 통나무집에서 숙박도 가능하다. 숲을 거닐기만 하면 아이들은 쉽게 지루해질 수 있다. 나뭇잎 가면이나 나뭇잎 왕관 만들기, 확대경으로 곤충이나 꽃 수술 들여다보기 등 간단한 놀이 소재들을 준비해간다면 훨씬 즐겁게 숲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청소년 자녀와 함께라면, **지식 충전 역사 여행**

일명 '뇌섹 예능'이라 불렸던 tvN의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이 큰 인기를 끈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프로그램이 인문학 여행만의 매력을 한

껏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곳곳에는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보석 같은 여행지들이 많다. 이런 여행지들은 청소년 자녀와 함께라면 더욱 즐겁게 누릴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장소에서 마주하고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주 여행이라도 인문학적 의미를 담아 본다면 여행의 색깔이 달라진다. 단순한 도서 관광지에서 과거 유배와 소외, 차단과 고립의 슬픈 역사가 담긴 여행지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현대사의 아픈 사연이 담긴 곳이라는 사실도 제주의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무대왕릉과 충의당, 첨성대 등의 유적지와 최근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황리단길이 어우러진 경주 역시 인문학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지역 곳곳에 숨은 역사와 이야기거리를 가족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지식의 깊이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라면, **건강 만점 식도락 여행**



아직 자신만의 가족을 꾸리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도 좋겠다. 최근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는 성인 자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20대 이상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해외여행 동반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모님'과 떠났다고 응답한 비중이 12.3%로 나왔다. 이는 2013년 집계된 8.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부모님과의 여행'은 평균 결혼 연령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생겨난 여행 트렌드다. 이에 자녀 세대인 2030 세대와 부모 세대인 5060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아이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모님과의 여행에서 가장 염두에 뒀야 할 부분은 단연 음식이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을 맛보게 해드린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또 대부분 연로하신 부모는 오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 준비도 필수다. 남도 여행은 한적한 풍경과 맛깔난 음식 덕에 부모님과의 여행지로 최적의 장소다. 섬진강이 아름다운 풍경이 살아 있는 하동, 메타세쿼이아 길과 대나무 숲이 장관인 담양, 밤바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수 등은 풍경도 음식도 모두 둘째가라면 서러울 여행지들이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쑥스럽다면 가족여행으로 마음을 전해보자. 부모님과 남쪽 바다의 붉은 낙조를 바라보며 손을 잡노라면 굳이 열 마디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판지맨과의 본격적인 결투에 나선 교정맨



삶을 추스르고 새롭게 일어서려는 사람들에게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내가 뭘 했다는 건가? 난 단지 제한할 뿐이지.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것이고.



다시 묻지.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뭐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아무리 노력해 봤자 결국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난 그런 인간들을 보는 것이 즐거울 뿐이야.



결국 사람들이 잘 못 되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낀다는 거군.

뭐~ 그럴지도~ 후웃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막을 테니까!



그럴 수 있을까?



후이잉잉



자신의 능력을 나쁜 일에 쓰지 마!

우윳!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군.



흥- 그건 내 마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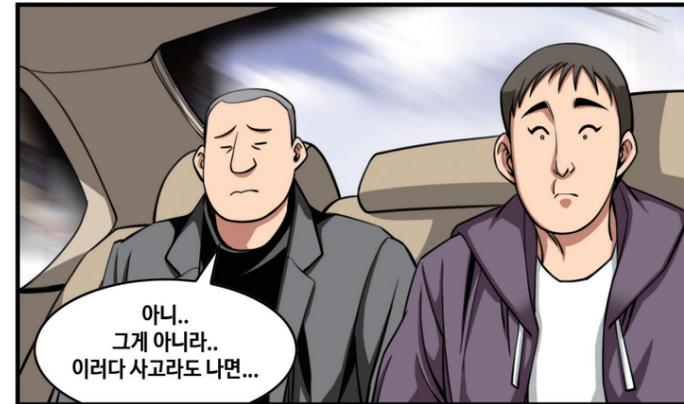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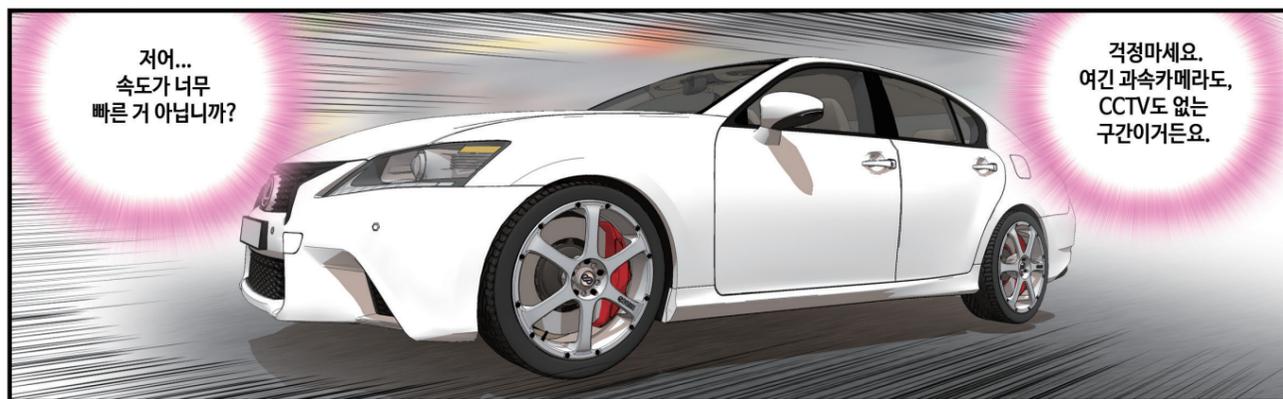


아무튼, 다음에 보자고-

엇-



생각보다 강한 녀석이야... 방법을 바꿔야 겠다.



여성 종신수들의 감동적인 노래 감옥에서 희망을 부른다

모든 수용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다.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점, 그리고 감옥에서 인생의 끝과 마주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종신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종신수에게 유일한 석방의 기회는 감형뿐. 희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상황 속에서 여성 종신수들이 노래를 부르며 희망을 싹틔우기 시작했다. 이번 호 '교정 인사이드' 칼럼은 팬실베니아의 감옥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는 여성 종신수들의 노래가 담긴 'The Lady Lifers'를 소개한다.



진짜 집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전 수감번호 008106이며 수감된 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브렌다 왓킨스입니다. 전 노스캐롤라이나 호프만에 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긴 나의 집이 아닙니다.”
여성 종신수들이 진심을 담아 부르는 노래는 심금을 울린다. 노래를 부른 이들 중에는 십대 시절 감옥에 들어와 30년 넘도록 감옥에서 지내온 종신수도 많다. 영상에서는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노래를 마친 후 각자 수감번호와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얼마나 오래 감옥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향은 어디인지 이야기 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된 문장으로 스피치를 마무리한다. 바로 “여긴 나의 집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다. 그들이 부른 노래의 제목이기도 한 이 문장에는 여성 종신수들이 얼마나 간절히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또 얼마나 강하게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지 그 애절한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다.



The Lady Lifers
TED 강연 영상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 종신수들이 노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바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본인이 억울하거나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용서다. 마음 깊이 뉘우치는 만큼 용서를 받고 가석방을 선고받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TED 영상 속 관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을 향해 박수를 보낸다. 그 박수 소리 속에는 연민과 응원, 그리고 사랑이 깃들여 있다. 그리고 ‘희망은 감옥에서조차 견재하게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감동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



♪ 또 다른 인생을 건어나가야 해요 ♪



♪ 내 가족을 볼 수 있을까요 ♪



전 뉴저지 노지에서 자랐습니다.



데브라 브라운: 수감번호 007800

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야
난 여자예요
난 할머니랍니다
난 딸이에요
난 아들이 있어요
난 천사가 아니예요, 악마도 아닙니다
난 감옥에 왔습니다
그땐 너무 어렸었죠
이 감옥벽 안에서 제 삶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죽는 것도 보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보았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내가 가석방 없는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른 죄수랍니다
이곳에서 복역 중이에요
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예요
자유와 꿈, 용서의 희망
내 가족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홀로 외로이 죽게 될까요

(중략)

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예요
내가 바라는 건 용서뿐이에요
언젠가 자유롭게 될 희망을 가져요
저 바깥 세상에
나를 위한 자리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기는 할까요
내 짧은 날의 죄에 구원이 있을까요
난 변했어요
주님은 내가 변한 걸 알고 계십니다

(후략)

TED 'The Lady Lifers'편 시청방법

www.ted.com에 접속한다 → 오른쪽 위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검색창에 'The Lady Lifers'를 입력한다
→ 동영상 중 'The Lady Lifers : A moving song From woman in prison for life'를 재생한다.

* 동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의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지원된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 다가왔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점점 초록빛을 더해가는 나무들과 공원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생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인지를 알려주는 책들과 함께 초여름을 맞이해보자.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들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명진 지음 / 다산초당

‘독설왕’, ‘청개구리 스님’, ‘운동권 스님’ 등의 별명으로 유명한 명진 스님. 이 책은 출가 5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내가 나를 찾는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힘을 준다”고 말하는 명진 스님이 지었다. 그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진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담았다. 최고의 부자도, 최고의 유명인사도 궁금해 마다하지 않는 질문은 바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 명진 스님은 말한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청춘’을 강조한다. 재탕, 삼탕하는 삶은 청춘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나이가 적다고 청춘이 아니라고 말한다. 기성의 권위와 전통이라는 틀을 비판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청춘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명진 스님이 전하는 말들을 천천히 곱씹으며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Read good Books



일단 오늘부터 행복합시다
마츠 빌마르크, 수전 빌마르크 지음 / 마일스톤

이 책은 우울증 때문에 몇 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CEO 부부가 어떻게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행복해졌는지 그 삶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리더로, 사업가로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 우울증과 약물중독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불안, 죄의식, 열등감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지 절실히 깨달았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식적으로 중시하면서 과거의 상처와 잘못, 실수를 곱씹으며 힘들어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자들은 오늘부터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훈련법을 제시한다. 부정적인 생각 바꾸기, 자존감 회복하기부터 정리 정돈, 청소, 운동, 수면, 일기 쓰기까지 직접 겪은 생생한 체험에서 나오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불행 피하기 기술
롤프 도벨리 지음 / 인플루엔셜

더 나은 미래, 더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준다는 제안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열심히 그 답들을 따라 해도 내 인생이 그다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 한 가지 개념, 한 가지 법칙만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조용히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때다. 한 가지 혹은 몇 안 되는 원칙으로 파악하기에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

저자인 롤프 도벨리는 유럽의 대표적인 지식경영인이다. 그는 “좋은 삶을 살고 싶은가? 간단하다. 불행은 피하고 행복은 늘려라! 이 간단한 방법이 어려운 것은, 많은 이들이 정작 불행을 줄이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그가 소개하는 52가지 방법은 인생을 살면서 매번 빠지는 불행의 함정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생각의 도구들이다. 불행의 함정들은 이런 것이다.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목을 매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순순간에 날려버리는 소비를 하고, 내일은 물론 오늘의 일에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과거를 분석하는 일 등이다. 이 책을 통해 나도 모르게 가진 오래된 편견과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바꿈으로써 멈춰 있던 인생이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자.

창밖 목련나무 그늘 아래에서 영산홍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정민원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동분서주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12월 어느 날, 서울구치소로부터 '민원실장을 했던 경험을 살려 교정민원콜센터 TF팀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제안을 받고 고민하던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깊은 한숨입니다.

2007년 여름 어느 토요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교정에 갓 입문한 신입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날 접견 안내 지원 근무를 하는데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까지 계속 작동하니 나른하고 멍해지기까지 하여 앉아 있을 수가 없던군요. 접견실 밖에서 안내를 하려고 나갔는데 접견실 앞에서 무성히 자란 풀들을 바라보는 당신을 보았지요. 당신은 갑자기 제게 '이 풀이 당귀가 맞나요?'라며 말을 건네었고 제가 답할 사이도 없이 바로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일하면서 손자를 돌보느라 접견을 2주에 한번 다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다고 했지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 올 것 같다고 한숨을 쉬면서도 아들이 교도소에서 자격증도 땀고 2년만 더 견디면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그래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말을 엮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저 말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접견을 마치고 떠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수용자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6개월쯤 지나 다시 접견 안내

지원 근무를 하면서 은근히 당신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그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회하지 못한 아쉬움과 깨달음을 주신 고마움을 담아 바람결에 안부편지를 띄웠지요.*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며 한편으로는 아들을 걱정했던 당신의 눈물과 한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다는 약속을 하면서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하루하루 견뎌내던 당신의 삶이 너무나 고단해 보였는데, 이제는 홀로 감당해야했던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셨는지요. 아마도 당신이 가장 아팠던 그 시절, 당신에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지요. 콜센터 구축 TF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지만, 십년 전 약속이 생각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리라 결심했습니다.

구축 과정에서 어려웠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저않고 싶었던 저를 다시 일으킨 건 내가 기억하는 당신의 한숨, 그리고 그동안 민원실에서 보았던 당신과 같은 수많은 수용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접견하려고 아침부터 먼 길 오느라 기력이 너무 떨어져 접견을 마치고도 바로 가지 못하고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서 한숨 돌리며 낙화를 바라보던 팔순의 할머니.

아들이 죄인이라서 성폭력 피해자 부모에게 매일 찾아가 잘 못했다고 빌며 때론 맞기까지 하지만 하소연도 못하고 민원실 밖에서 영영 울고만 있던 여자.

정신적인 문제로 수용생활이 원만치 않은 부인에게 밤새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되어 민원실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접견을 신청하며 돌아서던 남자.

상담원의 기도문

민원인이 저를 부른 순간마다
진심을 다하여 그 마음까지 듣게 하소서
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녀)가 평온해지게 하소서

때로 그(녀)의 거친 말에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상처 있는 그(녀)의 마음에
저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함을 감사하고
제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의 이름을
보듬을 줄 이는 상담원이 되게 하소서



그 모든 이의 한숨과 눈물이 교정민원콜센터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이 직접 상담하는 교정민원콜센터는 작년 10월 개소 후 지금까지 90%의 응답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363 번호에는 콜센터가 수용자, 가족, 교정기관 3자간에 원활한 소통을 이루도록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콜센터는 당신과 같이 갑작스러운 가족, 지인의 수용으로 마음 아프면서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편안한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게 일깨워준 소명, 앞으로도 새기며 일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일터와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손자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맛있는 식사를 하시겠지요. 내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정민원콜센터 전경

당신의 친구, 1363 교정민원콜센터



* 교정지 2008. 2.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게재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 헌신과 사랑으로 꽃 피운 교정 가족의 수상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법무부, 서울신문, KBS 한국방송이 주최하고 교정공제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교정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치하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용자를 내 가족처럼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바른길로 인도하는 교정공무원들과 교정위원들을 위한 따뜻한 축하의 현장을 중계한다.



축하와 격려 속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올해로 제36회를 맞은 교정대상 시상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제36회 수상자들과 이들의 가족 및 친지는 물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고광현 서울신문사 사장, 양승동 KBS한국방송 사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순길 교정

대상 심사위원장 등 수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간단한 리허설 진행 후 오늘의 사회를 맡은 KBS 한상현 아나운서의 개식 선언으로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개식사를 맡은 고광현 서울신문사 사장은 교정교화에 헌신적



으로 힘쓴 교정인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가족마저 외면하는 수용자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일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정신이 없다면 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차원에서 교정공무원, 교정위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고귀하다”고 교정인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본격적으로 시상에 앞서, 이순길 교정대상 심사위원장은 심사 경과보고를 통해 “법무부에서 추천한 2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정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실적 등 다양한 심사기준에 따라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하였다”며 교정대상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교정 가족들을 대표해 노달영 교위 외 16명 수상

교정대상은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1983년 법무부, KBS, 서울신문사가 공동 제정한 상이다. 제36회 교정대상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은 목포교도소의 노달영 교위로 26년 4개월 동안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교정전문 상담사, 성폭력상담원, 웃음치료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용자를 내 가족처럼 보살피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이어서 면려상에는 심적으로 불안하고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한 부산교도소 손창수 교위, 성실상에는 교정사고를 예방해 공적을 인정받은 울산구치소 권순병 교위, 창의상에는 출소예정자 10명을 취업시키고 사후관리로 안정된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강창원 교위, 수범상에는 불우수용자에게 영지금을 지원하고 원예기술을 전수하여 출소 후 창업 지원을 돕는 등 교정교화에 앞장선 공주교도소 백종석 교위, 교화상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적극 개최하여 수용자 67명의 취·창업에 크게 기여한 수원구치소 김요한 교위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더 나은 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

교정공무원 시상제 이어 교정참여인사의 특별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그동안 교정을 위해 봉사한 교정참여인사 11인은 박애상, 자비상, 자애상, 공로상, 봉사상, 교정발전특별상을 수여받아 그간 교정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본식의 다음 순서는 특별승진자 계급장 수여식이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교정대상 수상자 명단을 호명하자 노달영 교위, 손창수 교위, 권순병 교위, 강창원 교위, 백종석 교위, 김요한 교위가 차례로 나와 1계급 특별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진정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일선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는 16,000여 명의 교정공무원에게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은 교정가족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도관이라는 직업의 자긍심을 고취한 뜻깊은 장이었다.



제36회 교정대상 수상자

덕정기마-연



대상 교위 노달영
목포교도소



면려상 교위 손창수
부산교도소



성실상 교위 권순병
울산구치소



창의상 교위 강창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범상 교위 백종석
공주교도소



교화상 교위 김요한
수원구치소

덕정기마-연



박애상 교정위원 박미자
김천소년교도소



박애상 교정위원 이태원
청주여자교도소



자비상 교정위원 김순이
수원구치소



자비상 교정위원 이재등
전주교도소



자애상 교정위원 김정애
서울구치소



자애상 교정위원 박영자
대구교도소



공로상 교정위원 남지연
밀양구치소



공로상 교정위원 이재원
홍성교도소



봉사상 교정위원 손옥선
동영구치소



봉사상 교정위원 윤정환
정읍교도소



교정발전 특별상 6급(기술교육관) 조기등
국군교도소

Mini Interview

수상자 미니인터뷰



대상 교위 노달영 목포교도소

저는 수용자를 늘 진정성있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관심과 사랑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큰 영광이 있지 않으나 생각해 봅니다. 대상에 걸맞게 앞으로 더 소명의를 가지고 수용자 교정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수용자들은 비록 법을 어기고 들어왔지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용자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가족의 품으로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힘쓰겠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동안 내조와 두 아들 육아까지 잘해주어 너무 고맙고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면려상 교위 손창수 부산교도소

교정선배님들과 후배님들 도움 덕분에 제가 면려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감사히 여기고 퇴직할 때까지 교도소 질서유지와 교정교화에 힘쓰겠습니다. 옆에서 늘 내조해주고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도 잘 따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이런 상이 더 많아져서 교정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의 노고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실상 교위 권순병 울산구치소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제가 수용자를 상대하는 현장근무를 오래해 성실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상을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구치소 직원들과 교정가족 여러분께 매우 감사합니다.

창의상 교위 강창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온 덕분에 창의상을 수여받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과 가족 등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가진 역량을 모두 발휘하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수범상 교위 백종석 공주교도소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게 되어서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공주교도소 직원 선배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교정·교화를 통해 수용자를 환한 꽃으로 피워 세상 밖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교정·교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교정생활 동안 더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화상 교위 김요한 수원구치소

교도관 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근무해왔습니다. 오늘의 상이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은 묵묵히 일하는 많은 교도관들을 대표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로 주신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겸손하게 열심히 수용자들을 위해서 교정·교화에 앞장서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소에서 교정·교화에 힘쓰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모두가 교정대상 수상자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교정개혁의 전개와 특징(1950-2011)(下)¹⁾

III. 핀란드 교정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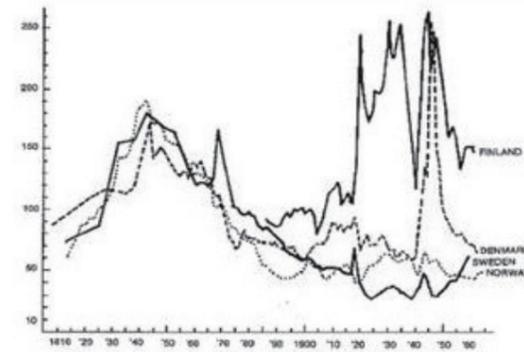
1. 정상화와 전문화: 1950년대 교정개혁

핀란드는 1918년 내전²⁾과 1940년대 소련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겨울전쟁과 계속전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³⁾. 하지만 1950년대 혼란기가 수습되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난에 대한 관리'를 폐지했다(Toikko, 2005: 151). 교정의 영역에서도 전쟁으로 취해진 많은 임시조치와 후퇴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전문화해 교정행정의 정상화를 추구했다. 1953년 법의 적용 범위는 엄격하게 정의된다. 왜냐하면 법이 중대 범죄자들부터 사회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범죄자와 비정상인을 격리하는 구금정책은 더 증가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중대범죄 수형자에게 강제력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수형자의 권리에 반하여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HE 101/1952)⁴⁾. 1950년대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의무화되었다. 마찬가지로 교도소 내 여러 직책에서 대학학위나 선발 시험이 요구되었고, 1955년 대학에서 교도소 교육 항목이 폐지된 후에는 헬싱키 중앙 교도소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⁵⁾.

- 1) 2018년 '교정' 5월호에 실린 상편과 이번호에 실린 하편의 글은 2017년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2) 핀란드에서 20세기 초반은 혼돈과 갈등의 시기였다. 1809년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핀란드는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혁명으로 러시아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활발한 독립의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강력한 '러시아화' 정책을 펼치는 등 두 나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노동계급의 성장으로 구 지배세력과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는 1917년 12월 6일 독립 후 곧바로 이어진 1918년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넉 달간의 내전으로 격렬하게 표출되었다(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7. 6. 3).
- 3) '겨울전쟁'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39년 11월 30일 소련의 핀란드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이듬해 3월 소련에 핀란드 동부지역(영토의 10%, 산업 능력의 20%)을 넘겨주며 종전되었다. '계속전쟁'은 1941년 6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고, 핀란드가 독일의 동맹군이 되어 소련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고, 1944년 9월 끝이 났다. 1947년 파리 조약으로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7. 6. 3).
- 4) <https://www.edilex.fi/he/arkisto/kaikki/1952>(검색일: 2017. 6. 3).
- 5) Rikosseuraamuslaitos, (2017. 1. 19), <http://www.rikosseuraamuslaitos.fi/index/rikosseuraamuslaitos/historiaa.html>(검색일: 2017. 6. 3).

2. 북유럽 교정체계의 도입과 진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1960년대 들어서면서 교정행정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960년대 북유럽 국가 전반에 걸쳐 형사제도 전반에 관한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었다. 핀란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인도적이고, 덜 구금하는 방향으로 교정개혁이 진행되었다. 핀란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북유럽 사회복지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교정정책은 사회복지의 종합적인 목적들과 함께 정의되었다. 여기에 비윤리분석이 형사 정치적 사고에 도입되면서 핀란드는 범죄자에 대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적절한 정책효과와 비용, 다양한 전략과 수단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형사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인도적 신고전주의'를 표방하였고, 형 선고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과잉조치 금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의 원칙이 중심 가치가 되었다(Lappi-Seppälä, 2009: 334, 350).



〈그림 2〉 북유럽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수형자 수, 1810년-1965년
자료 : Christie, N., 1968: 170.

이 시기 교정개혁의 특징은 첫째, 교정개혁이 수형자 수를 줄이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표 1〉과 같이 1960년대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수형자 수가 지나치게

- 6) 1963년 12월 1일 현재, 2,659명의 수형자가 폐쇄형 교도소에, 2,809명의 수형자가 준-개방형 교도소에, 그리고 1,421명의 수형자가 개방형 기관에 수용되어 있었다. 핀란드에는 총 42개의 수용기관과 분류 센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3개의 최고 보안 교도소(Maximum-security prisons), 1개 여성교도소, 8개의 준-개방형 기관(Semi-open institutions, 농장형태), 7개의 분류센터(Classification center), 18개의 노동 작업장(Labour colonies), 4개의 교도소 작업장(Prison colonies), 2개의 노동수용소(Labour camps)가 있었다. 준-개방형 기관 중 하나는 15세부터 21세 사이의 비행 청소년을 위한 것이었다(Seine, V., 1964: 19).
- 7) <https://www.edilex.fi/he/arkisto/kaikki/1972>(검색일: 2016. 6. 3).

많았다⁶⁾. 교정개혁은 과잉구금과 교정의 흑독함을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다소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 수치는 내전과 소련과의 전쟁으로부터 기인했다. 정치범들과 포로들의 수용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재산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Lappi-Seppälä, 2009: 348). 핀란드는 이미 1940년대와 50년대에 사면과 노동 작업장의 설립, 조건부 형(집행유예)의 확대, 법원 판결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구금률을 상당히 떨어뜨렸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핀란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66년 가석방 조건을 완화한 가석방 개혁, 1967년 핀란드 독립 50주년 기념사면, 1969년 벌금제와 폭력죄의 완화, 공공장소 음주 합법화, 1971년 중범죄를 저지른 재범자에 대한 보호감호 제한 등의 조치를 연속적으로 시행했다. 이 같은 개혁을 통해 수형자 수는 1950년 7,507명에서 1974년에는 5,104명으로 급감했다(von Hofer H & Lappi-Seppälä, T & Westfelt L., 2012: 68).

둘째, 인도적인 구금정책이 확립되었다. 1970년대 가장 중요한 개혁은 1975년 RTA(행형법, Rangaistusten Täytäntöönpanosta Annetun Lain) 개정이다. 개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구금시설의 조건은 가능하면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Oikeusministeriö Helsinki, 2006: 24). 이에 따라 교도소 내 처벌이 제거되고, 의복, 식사, 서신 및 접견 등 수형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이 가능한 데에는 교정당국이 '흑독한 처벌이 수형자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개혁 전에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흑독한 처벌은 수형자에게 전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형자들의 사회를 향한 반감만 가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통을 제거한 자리에는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들어갔다(HE 239/1972)⁷⁾. 수형자들에게 적절한 학습과 직업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고용과 주택문제, 기타 사회 적응을 돕는 상담과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수형자들은 석방 전에 반드시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들과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아야 한다(Arja Kirjavainen, 2012: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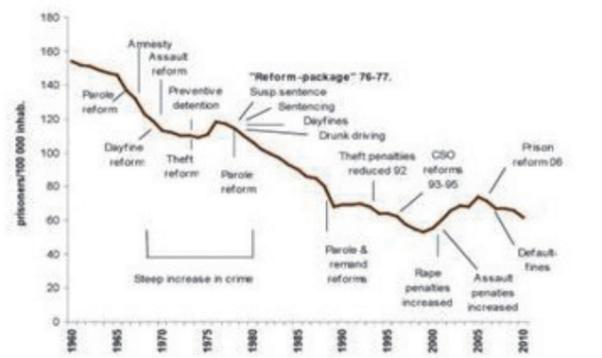
셋째, 교정당국과 사회복지정책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되었다. 1982년 사회복지법이 발효된 후, 사회복지정책이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짐에 따라 수형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예를 들어, 학습,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 과거의 교정당국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같은 노력은 1991년 '교도소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전문담당자들이 수형자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수형자들과 상담을 통해 석방 후에 마주할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줄이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Arja Kirjavainen, 2012: 62-65). 1980년대 교정당국의 초점은 특정 그룹과 함께하는 사회사업에 맞춰졌다. 이러한 노력은 1991년에 시작된, 최초의 지역사회 제재인, 지역사회 서비스(사회봉사)로 이어졌다⁸⁾. 지역사회 서비스는 1991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었고, 마침내 1996년 12월 1일 핀란드 교정 시스템으로 확정되었다(Ekunwe, I, 2007: 27).

한편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핀란드는 소련의 붕괴로 사회적 혼란과 경기침체를 겪었다. 재산범죄와 절도 및 폭력, 강도 등의 범죄는 1990년과 91년까지 상승했다가 92년부터 급락했다. 이는 1991년부터 93년의 경기침체의 충격이 임금과 사회 복지 비용의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소득의 축소는 알코올 소비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폭력, 재산범죄가 감소했다. 한편, 소련의 붕괴로 국경이 열리면서 많은 약물이 유입되었고, 약물 문제는 90년대 내내 핀란드 사법당국의 근심거리가 되었다(Lappi-Seppälä, 2009: 367-369). 하지만 이 시기에도 교정개혁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1989년 가석방 기준의 완화(3개월에서 14일로)와 청소년에

대한 구금제한, 1990년 미결구금 기간 단축, 1991년 재산범죄 처벌 완화와 지역사회서비스 도입으로 구금률은 계속 하락했다.

3. 처벌로의 회귀 vs 인도적 가치의 보존: 1990년대 초부터 2011년까지

1993년과 94년에 걸쳐 범죄율은 하락하였지만 90년대 전반적인 범죄율의 경향은 상승 곡선을 띄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대에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주관적인 공포가 증가했다. 공포와 불안은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고, 결국 사회 가치 구조 변화와 사회경제 구조의 약화로 이어졌다. 복지예산은 축소되었고, 사회적 틈은 벌어졌다. 사회적 가치의 경직, 공동책임 의식의 약화, 부자와 가난한 자와 같은 용어들이 90년대 사회 정책 분석의 표현들이 되었다(Lappi-Seppälä, 2009: 376).



〈그림 3〉 핀란드의 수형자 비율과 교정 개혁
자료 : Lappi-Seppälä, 2009: 360

〈표 2〉는 1960년대 이후 핀란드의 형사제도 변화와 수형자 비율을 한눈에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하향 경향을 보이는 수형자수비율 그래프가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90년대 초·중반에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에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처벌강화의 요구가 형사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4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1995년 가정 폭력의 기소 대상 포함, 1999년 강간죄 처벌강화, 2000년 폭력죄 처벌강화, 2001년 중대범죄에 대한 최저형의 상향조정, 2002년 경찰 권력의 확대 2005년 인신매매, 성매매, 아동포르노 처벌강화와 같은 조치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 교정개혁의 특징은 첫째, 처벌강화 요구에 대한 인도적 대응에 있다. 특히 교정당국은 약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결과적으로 교정당국의 치료역량이 강화되었다. 핀란드에서 처벌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약물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5년 있었던 RTA(행형법) 개정은 이와 같은 고민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때 개정 목표는 교도소에서 마약과 약물 남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교도소 시설을 변경하고, 독성물질의 사용 통제를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약물 중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형자를 위한 특별부서의 도입을 허가했다(Lappi-Seppälä, 2000: 108).

둘째, 미디어가 교정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경제적 불안은 미디어에 의해 부풀려졌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범죄보도의 비중은 점차 높아졌다. 공포의 경향과 신문의 일면이 폭력사건으로 장식되는 것 사이에는 일종의 연관이 있었다. 피해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석간신문의 범죄 관련 보도는 50%까지 증가했고, 공포는 3분의 1이 증가했다(Kivivuori, Janne; Kemppe, Sari; Smolej, Mirka, 2002). 대중의 공포는 처벌 강화 정책으로 수렴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성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미디어도 이에 발맞춰 지난 10년간 지속한 형사제도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비판했다. 그들은 현재의 형사정책이 형사정치 마피아에 의해 지배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정책은 최근 초국적으로 조직된 범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미디어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핀란드 교정개혁이 지식인-악명 높은 마피아-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세기 말의 논의는 그보다 더 적은 수의 정치인과 미디어에 등장한 소위 전문가인 양 하는 사람들-배우들-에 의해 점령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0년대와 70년대가 단순히 인도주의적 형사 제도를 추구하려고 했다면, 1990년대 변화는 보다 더 다양한 수형자들이 반영된 결과였다. 1990년대의 변화는 자신만의 배경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미디어 문화와 대중 감정의 변화에 기인했으며,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Lappi-Seppälä, 2009: 375).

셋째, 이 같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교정 정책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2006년 교도소 법(Vankeuslaki)은 이와 같은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⁹⁾. 이 법은 RTA(행형법)를 대체한 것으로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였다. 2006년의 교도소 법은 2000년 개정된 헌법에 의한 수형자 보호, 최소한의 개입원칙과 최소한의 피해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Lappi-Seppälä, 2012: 214). 법은 수형자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형사 정책을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수형자에게 직업과 주택, 그밖에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에 관한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완전히 통합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수형자에 대한 일차원적인 관점만을 반영하는, '범죄자의 행동을 다루는' 재사회화 개념보다 훨씬 더 진전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케라바(Kerava) 교도소의 한 프로그램은 그동안 범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거의 하지 않았던 방식, 사회적 차원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전면적인 재사회화'를 모색한다(Warner, K. 2011: 98). 다음으로 법은 구금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수형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을 규제하며, 그리고 이송 절차를 개선했다(Milla Yli-Hyövälti, 2011:65). 개정법은 구금의 범위와 수형자 수에 영향을 주었다. 보호 감호는 폐지되었고, 이것은 법원이 중대범죄자들에게 형을 완전히 채우는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유예기간을 두고 감독하는) 조기 석방의 새로운 형

9) 핀란드 교도소법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논의는 1998년 전문가 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여러 면에서 1992년, 1998년 그리고 2003년 CPT의 방문과 관측에 영향을 받았다. 핀란드 교도소 법은 초안자들이 유럽회의의 2006년 규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2006 유럽연합 교도소 규칙을 따라 기초하였다(Lappi-Seppälä, 2009: 342).

8) Rikosseuraamuslaitos, (2017. 1. 19), <http://www.rikosseuraamus.fi/fi/index/rikosseuraamuslaitos/historiaa.html>(검색일 : 2017. 6. 3).

태는 집중적인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한 장기수형자들을 위해 고안되었다(Lappi-Seppälä, 2009: 343).

또한 이 시기 형사제도의 변화는 2006년 중재법의 시행과 2011년 감시형의 시행에 있다. 이 제도들은 구금형을 감소시킴으로써 교도소 수형자 수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교정 체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2001년에 형사제재 집행 기관은 법무부의 형사정책국의 하나로 재편되었다. 법무부의 구금부서는 폐지되었고, 새로운 형사제재국이 만들어졌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제재를 담당하는 교정부서가 생겨났다. 형사제재국은 교도소에서의 집행과 교정행정 전반을 주도했다. 다른 조직 개편은 교도소 담당부서와 교정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가 형사제재본부라는 하나의 단위로 합병된 2010년에 있었다¹⁰⁾.

IV. 결론 및 시사점

이 글은 핀란드 교정개혁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을 분석했다. 북유럽 국가들의 교정 제도는 '북유럽 예외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 특히 핀란드는 같은 북유럽 국가 내에서도 매우 낮은 구금률과 인도적인 교정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 정책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핀란드가 어떻게 해서 현재의 교정 제도를 갖추게 되었는지 교정개혁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교정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핀란드의 교정행정은 내전과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혼돈과 갈등의 시기를 보였으나, 1950년대 교정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화하는 등 정상화의 길로 나아갔다. 1960년대 이후 핀란드는 북유럽식 교정제도의 형태를 빠르게 갖춰나가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아졌지만,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교정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분석 결과 핀란드 교정개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핀란드 교정개혁은 국제적 협력 속에서 진행되었다. 핀란드에서 1955년 3월 도입된, 개방형 교도소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교도소 작업장'의 도입은 1955년 8월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1차 유엔총회의 결정과 맞물려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의 개혁은 북유럽 이웃 국가들로부터 매우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962년 창립된 '스칸디나비아 범죄학 연구회'는 점차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형사제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고, 핀란드는 이 회의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Lappi-Seppälä, 2012: 207; 2009: 363-364). 마찬가지로 2006년 교도소 법의 개정도 유럽의회의 규칙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핀란드의 교정개혁은 수형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출발하였고, 지금도 그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의 교정개혁의 핵심은 수형자 수를 줄이고 혹독한 처분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핀란드의 수형자 수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두 세배 정도로 많았으나, 1990년대 초에는 비슷한 수준에도 달했고 현재는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핀란드 법무부 장관의 연설문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핀란드는 현재도 수형자 수를 적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Minister of Justice of Finland, 2014: 3-5).

셋째, 핀란드의 교정개혁은 다른 사회정책과 매우 긴밀하고 체계적인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1980년대 사회복지법이 발효된 후 수형자들에게 광범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핀란드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여러 당국의 담당자들이 협력하여 수형자들의 학습과 일자리, 주거와 기타 문제 등에 개입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핀란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형자의 단순한 사회복지가 아닌 완전한 복귀와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한편, 핀란드 교정개혁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첫째, 핀란드 교정개혁은 지나

치게 높은 구금률을 공무원과 사법부, 교정당국, 그리고 정치인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결과이다. 둘째, 매우 특이하게도 범죄 정책 분야 전문가 그룹의 영향이 지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와 직접 협력하면서 교정 개혁을 주도했다. 셋째,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핀란드의 미디어는 사법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냉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러한 태도가 가능한 데에는 구독료를 내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의 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신문 구독률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핀란드 미디어는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구독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낮았다. 넷째, 법관들의 준비된 태도와 적절한 교육에 있다. 개혁적인 형사정책은 법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고, 대학교육과 세미나, 연수를 통해 법관을 비롯한 검사, 변호사들에게 제공되었다(Lappi-Seppälä, 1998: 19-21). 하지만 핀란드 교정개혁의 특징을 다른 부분에서 찾는 연구자도 있다. 러셀 호그(Russell Hogg)는 프랫(Pratt, J)의 '노르딕 예외주의'에 관한 연구를 비판하면서, 핀란드의 교정개혁은 정치적 프로젝트에 의해 추진되어온 측면이 강하고, 따라서 노르딕과의 문화적 유사성만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Russell Hogg, et al, 2013: 125). 이와 같은 견해들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핀란드 교정개혁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특히 한국과 비교했을 때 특징들이 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핀란드의 교정 개혁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제협력에 관한 부분이다. 핀란드는 한국과 유사하게 내전을 겪었다. 내전 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적대감, 빈곤과 그에 따른 외부로의 인구유출은 한국과 유사했지만, 교정개혁의 양상은 다르게 펼쳐졌다. 가장 큰 이유는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웃 국가들이나 혹은 국제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른 사회정책과의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부분이다. 북유럽은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기에 이 협력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핀란드의 경우 그것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교정 제도 역시 핀란드처럼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수형자들에게 출소 전, 혹은 출소 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면 한국의 교정 제도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혁이 신중하게 준비되고 토론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70년대 핀란드의 교정개혁은 노르딕 사법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 속에 진행되었고, 지역사회 서비스는 6년 동안의 시범 기간을 거쳤으며, 2006년의 교도소 법 개정 역시 8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교정 개혁을 수행하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신중한 접근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핀란드에서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핀란드 시민들과 판사들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특히 더 혹독한 처벌을 요구했다. 폭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에는 가장 강한 처벌이 필요하고, 마약 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대중들의 의견은 이후 법의 개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¹¹⁾. 핀란드가 이와 같은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구금 정책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핀란드의 교정 개혁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 연구는 핀란드 교정개혁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몇 가지 한계도 있다. 첫째, 핀란드 교도소 내부의 체계나 규칙, 환경과 수형자들의 생활을 분석하지 못했다. 특히 핀란드의 개방형 교도소는 핀란드 교정행정의 면모를 볼 수 있는 표준이 되는 시설이지만, 이 글에서는 상세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둘째, 핀란드 교정개혁의 독특함으로 일컬어지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과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분석은 핀란드의 교정 개혁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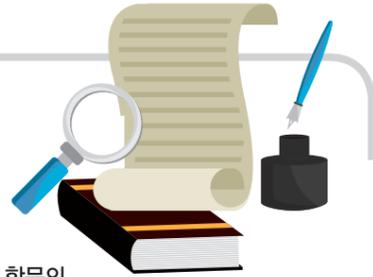
10) Rikosseuraamuslaitos, (2017. 1. 19), <http://www.rikosseuraamus.fi/fi/index/rikosseuraamuslaitos/historiaa.html>(검색일 : 2017. 6. 3.).

11) YLE, (2017. 2. 14), https://yle.fi/uutiset/osasto/selkouutiset/tiistai_1422017_radio/9459800(검색일 : 2017. 6. 3.).



지상강좌

교정학은 교화개선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구되는 분야다.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교정학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1. 수용자의 소장면담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 ②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 ③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 ④ 다른 수용자를 대신하여 그 처우에 관하여 면담을 요구하는 때

형집행법 제116조(소장 면담)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 ① ② ③ 동일
- ④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답 ④

2. 현행법령상 외부인의 교정시설 방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순회점검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 ② 소장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직업·주소·나이·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시찰이 금지된다.
- ④ 소장은 외국인의 참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이 금지된다.

정답 ③

3. 현행법령상 규정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 ㉡ 다른 수용자를 교사(敎唆)하여 징벌대상행위를 하게 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한다.
- ㉢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있다.
- ㉤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이 틀린 지문이다.

㉠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4. 수용자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민·형사소송,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이 있다.
- ㉡ 권리구제 수단으로 가장 확실하게 인식되는 것은 소송을 통한 구제이다.
- ㉢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은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수행자의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처리될 수 있다.
- ㉣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 현행법상 소장면담은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할 수 있다.
-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은 청원과 동일하게 본인만이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행정심판은 비사법적 구제수단이다.

㉡ 현행법상 소장면담은 처우에 관하여 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은 본인과 제3자도 가능하다.

정답 ③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June 2018 Vol. 505

교정본부장, 충주구치소·청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지난 5월 3일 충주구치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였으며 4일에는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과의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교정위원 간담회를 통해 수용자 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직원 간담회에서는 현장 근무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중독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교정본부는 지난 5월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한국중독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중독사범의 회복적 사범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김학성 교정본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서호영 법무부 심리치료과장의 주제 발표와 교정공무원 86명에 대한 중독심리사 자격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서울남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지난 5월 11일 김혜숙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16명이 서울남부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구내참관 및 정책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제영 교정기획과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과밀수용 해소 방안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선 근무복 확정 및 착용계획 시달

근무복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5월 11일 개선 근무복 착용 계획이 시달되었다. 직원 선호도를 반영한 연한 네이비색 셔츠와 검정 플레킷이 개선 근무복으로 확정되었으며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전국 교정기관 직원 134명을 대상으로 시범 착용이 이루어진다. 시범 착용 기간을 거쳐 9월 말 ~ 10월 초부터 전직원이 개선 근무복을 착용하게 될 예정이다.

2018년도 지방교정작품 전시회 개최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조선대학교 장미축제장에서 광주지방교정청 주관으로 교정작품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조선대학교와 협력한 이번 행사는 장미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축제장 내에 전시부스를 마련하여 목공·도자기·한지 등 공예품 총 40종 164점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수용자 생산품 직판장인 보라미 장터와 현악공연, 포토존, 기념품 배부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펼쳤다.

제11회 전국 교도관 음악회 실시

지난 5월 26일 제11회 전국 교도관 음악회가 천안 교도소 주관으로 천안시 도솔광장 야외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교도관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희망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었으며 천안시민, 교정위원 및 교정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

지난 5월 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보호장비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시행된 이번 개정령은 ① 실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개인포승을 보호장비에서 제외 ② 일반포승의 사용방법과 재질 등을 개선한 벨트형 포승 도입 ③ 머리보호장비의 재질을 폴리우레탄으로 변경하고 환기 구멍의 크기를 3센티미터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광철

지진대피 및 화재 대응 훈련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하여 5월 14~17일 지진대피 훈련 및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재난위험 경보발령 시 대피장소 이동 및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물품창고 화재 발생가상 상황에 따른 대응 능력 강화 및 지위소방대 임무에 따른 역할 등의 도상 훈련을 진행하였다.

서울구치소 / 교도 변무관

어린이날 행사 개최

서울구치소는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3일 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 내에 있는 초록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직접 준비한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인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이례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과 업무협약 체결

인양교도소는 5월 24일 사단법인 이례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과 수용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담 및 성폭력·정신질환·상습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수용자 심리치료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아버이 날 기념 사랑 나눔 행사 개최

수원구치소는 5월 9일 제46회 아버지날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고령수용자 22명을 대상으로 아버지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케네이션을 달아주고 다과를 함께 나누면서 고령 수용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여 편안한 수용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정우회 참관 및 기부금 전달식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5월 18일 퇴직 교정공무원들의 모임인 정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관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기관현황 소개, 구내·외 시설 참관 순으로 이루어졌다. 정우회 회원들은 몰라보게 발전한 현대 교정시설에 감탄하며 교정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후배 교정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함과 더불어 수용자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 목적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인천구치소 / 교사 강호철

재난예방 합동 소방훈련 실시

인천구치소는 5월 15일 복합재난(지진, 화재 등) 발생을 가정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예방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는 인천남부소방서를 비롯하여 남구청, 남부경찰서 군부대 등 12개 유관기관(300여 명 인력)과 소방헬기, 소방차 등 장비 50대가 동원되었으며, 인명구조, 종합방수 등 체계적인 화재진압 훈련이 진행되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유진규

방글라데시 내무부 직원 참관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5월 16일 마약통제관 및 교도관으로 구성된 방글라데시 내무부 직원 2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전자경비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용동과 주벽 및 펜스를 둘러보며 발전된 대한민국 교정의 모습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2018 재난대응 안전훈련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16일 수용자 집단난동, 방화, 도주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집단난동 진압, 화재초기 진화, 도주자 체포 등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화성소방서, 화성시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



의정부교도소

했으며 고가 사다리차, 소방차 등 각종 장비와 차량이 투입되었다. 화성소방서 대원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했으며 화성서부경찰서 기동타격대와 168연대 부대원들은 도주자를 추적하여 체포하는데 협력하였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이금로 법무부 차관, 정책현장 방문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5월 9일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하였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자비 나눔 행사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도 방문하였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용자의 처우를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금로 차관은 설정스님과 함께 심리치료센터, 직업적응정전기면도기 제작) 등을 참관하고 자비 나눔 행사를 통해 직원과 수용자를 격려하였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및 노래자랑 실시

여주교도소는 4월 20일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수용자 노래자랑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여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짜장면과 탕수육을 후원하고 초대가수인 서하인 가야금리스트가 수준 있는 연주와 노래를 펼쳐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직원 미니콘서트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5월 15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직원 미니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아코디언, 색소폰 등으로 구성된 초이스 앙상블 연주팀을 초청하여 다채로운 음악공연을 즐기고, 공연 후반부에는 직원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월교도소

NEWS

춘천교도소 / 교사 김민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춘천교도소는 4월 26일 청사 교육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춘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장애의 이해, 장애와 인권 등을 주제로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설명했다. 교육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돼 장애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원주교도소는 5월 17일~18일 모범수용자 가족 80여 명을 초청하여 소 내 교회당에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행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수용생활을 잘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고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상수

소통과 화합의 체육행사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5월 3일 업무에 지친 소속 직원들을 위로하고 직원간 소통과 화합 증진을 위한 2018년 춘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춘계 체육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호회별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자매결연 마을 농작물 직거래 장터 개최

대구교도소는 5월 2일 소 내 연무관 앞에서 자매결연 마을인 달성군 논공읍 삼리1리(식삼마을)의 특산물 토마토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의 관심으로 200여 상자의 토마토가 순식간에 판매되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생의 장터가 되었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실시

부산구치소는 4월 20일 김진영 교정협의회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전수식을 통해

강릉교도소 / 교감 김이수

힐링 미술콘서트 개최

강릉교도소는 5월 23일 수형자의 심성순화와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김청 미술사를 초청하여 '힐링 미술콘서트'를 개최하였다. 교도소 수용자 희망재단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미술콘서트에는 비둘기, 로프, 링을 이용한 다양한 미술이 펼쳐져 수용자들이 미술의 세계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이 되었다.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관 행사 실시

영월교도소는 5월 11일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교수 및 학생들 54명을 초청한 이날 행사는 교정 홍보동영상 등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중앙통제실, 수용동 등 교정시설을 직접 참관하게 함으로써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하였다.

상반기 신규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또한 교정행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시설 참관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및 소년수형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교정위원과의 '사랑의 멘토링 데이(mentoring day)' 행사를 실시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김남규

교정가족 참관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0일 교정공무원의 가족을 초청하여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가족 초청행사는 남편 또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현장을 참관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정공무원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창원교도소 / 교도 박혜빈

신규직원 대상 이벤트 실시

창원교도소는 5월 11일 신규직원 및 가족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급된 선물은 교도직업을 통해 생산된 물품(핸드폰거치대, 비누)들이다. 이를 통해 교정이 교도소의 기능(구금) 이외에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사 정원기

직원 응급처치 교육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5월 24일 직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응급처치 교육은 참석한 직원 전원이 심폐소생술 모형인형인 애니를 이용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소망교도소 / 배송철

제13차 교정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소망교도소는 5월 25일 제13차 교정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태훈 위원장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토의시간을 가졌다. 특히, 외부위원들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소망교도소 구내 참관을 실시하였으며 민영교도소의 특성이 반영된 금속공예 교도직업, 예능인성교육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부산교도소 / 교사 강민승

인권포스터 전시회 개최

부산교도소는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5월 4~18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함께 인권포스터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지금까지 포스터 부문에서 평등, 장애인, 노인, 아동 인권 등의 주제를 이미지로 우수하게 표현해 수상한 19개 작품이 전시되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재난대비 합동소방훈련 실시

포항교도소는 4월 26일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흥해119 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재난발생 메시지가 전달되자 수용자 대피, 자위소방대의 초동진화, 소방서의 합동진화, 환자 긴급후송 등 단계별 대응이 이뤄졌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고령자·장애우 수용자 등 대상으로 행사 실시

진주교도소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4일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우 등 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

대구지방교정청

교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을 맞이한 해당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로 교령 수용자 카네이션 달아주기, 무용, 국악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 창원 갈릴리 선교회에서 준비한 치킨, 과일 등 다과를 나누기도 하였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실시

대구구치소는 5월 15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수성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는 6개월간 꾸준히 직원들의 식단, 운동량 등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직원들은 혈액검사, 신체계측 등 다양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늘해랑 개관 기념식 및 직원 체육행사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10일 늘해랑 개관기념식 및 직원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늘해랑은 '늘 해 맑고 건강한'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써 직원들에게 명칭을 공모하여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늘해랑에는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및 작품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직원과 인근 주민의 참여로 미술작품 전시회도 같이 열렸다.

안동교도소 / 교도 양승명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 실시

안동교도소는 5월 3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권세명 계장을 초빙하여 1시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소속직원들에게 선거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현

진보고등학교 밴드부 연주회 개최

5월 1일 진보고등학교 통합밴드부 'JB' 8인이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방문해 수용시설을 참관하고 직원들을 위한 연주회를 가졌다. 이날 연주회는 진보중·고등학교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년

사랑의 장학금 전달

김천소년교도소는 5월 3일 교도소 인근 문성중학교를 방문하여 2018년 상반기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운영되는 장학기금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2명과 성적 우수 학생 2명에게 각각 2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우성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26일 목화웨딩 연회실에서 서수원 소장과 교정위원 38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7년도 감사보고, 사업 및 결산보고, 교화활동 실적보고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분석 및 토의를 시작으로, 2018년도 교정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교정행정발전 유공 교정위원 등 표창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창장 전수식이 이어졌다.

울산구치소 / 교사 광태규

수용자 문화공연 개최

울산구치소는 5월 14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울산화목봉사회 문화공연팀을 초청하여 수용자 한마음 음악 축제를 열었다. 이날 공연은 교정시설 내에서 전통무용, 전통인양, 가요 등의 문화공연을 가정으로써 수용자들의 문화욕구 및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항교도소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노인수용자 위로회 실시

경주교도소는 5월 11일 노인수용자를 대상으로 위로회를 가졌다.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김경식 교정위원의 색소폰 연주, 뮤직패밀리의 기타 연주와 준비해온 다과를 통해 노인수용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짜장면 배식 행사 실시

통영구치소는 4월 24일 교정협의회 후원을 받아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짜장면을 배식하는 행사를 가졌다.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9명과 자원봉사자인 요리사 정일훈 등 3명이 손수 요리하여 짜장면을 배식했다.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현

지역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교실 실시

밀양구치소는 5월 2일 밀성고등학교 재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교실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고 청소년들이 직접 직업현장을 찾아 공무원들과 만나 일하는 모습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미래 진로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주고자 실시하였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상주교도소는 5월 14일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교정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소방장비사용법, 신속한 수용자 대피 훈련 등 응급상황 대처요령을 점검하고, 소방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을 극대화하여 수용자의 인명 및 교정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NEWS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형석

외부강사 초청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4월 27일 대회의실에서 '생각의 변화, 폭력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성폭력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운동의 배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시작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발생원인, 직장내 성희롱의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 일상에서의 예방 및 실천 방안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대전교도소 / 교위 하봉문

수용자 취업지원협의회 개최

대전교도소는 5월 14일 임원 선출 및 출소예정자 취업·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한 국산업인력공단 등과 연계한 유망 구인 기업체를 발굴하는 등 교정본부가 시달한 취업·창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청주교도소 / 교사 김재덕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관 실시

청주교도소는 5월 9일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사회복지학 전공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도관 직업소개 및 홍보 동영상 시청하게 하고 자치 수용동 등 구내를 둘러보는 동안 다양한 수용자 처우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교정청

천안교도소 / 교사 이희성

서울남부교도소와 교정위원 상호교류

천안교도소는 4월 26일 천안교도소 교정위원과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의 상호교류 및 참관을 실시하였다.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현황 등을 소개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온누리갤러리, 문화센터, 심리치료센터 등의 참관을 실시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직원 가족 참관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5월 10일 청주여자교도소 직원 가족들을 위한 직원 가족 참관을 실시하였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하여 가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교정공무원의 역할 및 수용관리의 전문성 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제공하고자 계획되었다.

공주교도소 / 교위 김종욱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관 실시

공주교도소는 5월 14일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및 교정기관의 법집행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

음주운전 근절 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4월 23일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을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고질적 문제인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 및 신분상 문제 기준, 올바른 음주문화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공주교도소

NEWS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

제8회 법무부장관기 예선 축구대회 우승

홍성교도소 축구동호회는 5월 12일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법무부장관기 예선 축구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충청지역 축구대회 '4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학생참관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8일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및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시대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교정행정 발전사 및 법집행 확립을 위한 교정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들은 수용거실, 공장동 작업현장, 만남의 집 등 구내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수용자 자동차 생산공장 견학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4월 23일 가석방 예정자 등 모범 수용자 9명이 소 인근지역에 있는 경승용차 전문 생산 업체 (주)동희오토를 방문하도록 하는 사회견학을 실시하였다. 모범 수용자들이 자동차의 조립과정 및 작업현장 등을 견학하여 시기를 진작하고 사회성을 함양하는 데 큰 활력을 북돋아 주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사랑의 손잡기 운동 후원 장학금 전달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5월 8일 관내 성동초등학교 학생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전달되었으며 직원들의 순수한 모금으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있었다.



천안개방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최규철

춘계 체육행사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가정의 달인 5월 9일 직원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춘계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체육행사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야구관람을 하였다. 모두가 큰 소리로 함께 응원하며 즐겼던 시간이었다.

광주교도소 / 교사 이병석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교도소는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일주일 앞둔 5월 11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참배인단은 민주주의 문을 지나 추모탑에서 헌화를 하고 5·18민주유공자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를 둘러본 후 추모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전주교도소 / 교사 김용희

나눔미장학회,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전주교도소 나눔미장학회는 5월 18일 교도소 인근 초·중·고교생 35명에게 장학금 1,7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소년·소녀 가장과 조손가정 등 경제적 지원 및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장학금(각 50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전주교도소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나눔미회는 매월 일정액을 모금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교도소 / 교사 방상용

전문강사초빙 직원 자살예방 교육 실시

순천교도소는 5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의인 조상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법, 자살 교위험군 조기 발견 방법 및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목포교도소 / 교사 이정균

퇴직 선배 교정공무원 초청 참관 실시

목포교도소는 5월 9일 교정동우회 목포지회 회원 30명을 초청하여 참관을 실시하였다. 선배 교정공무원들은 전자경비시스템, 거실문자동화시스템 등 첨단 경비시설과 과학적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후배 직원들과 어울려 구내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및 학생 참관 실시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및 학생 38명은 4월 30일 군산교도소를 참관하였다. 이날 참관은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학생들이 직접 교정현장을 참관하며 교정정책 및 행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도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앙통제실, 신입실, 자치수용동 등 군산교도소 주요시설을 참관하였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시설 참관 실시

제주교도소는 5월 14일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실제 교정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교정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제주교도소를 방문한 학생들은 교정행정 홍보 영상 시청 후 취사장, 직업훈련장, 수용동 등 시설을 돌아본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 현장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교도소



순천교도소



제주교도소

NEWS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모범수용자 가족초청 만남의 날 행사 실시

장흥교도소는 5월 14~16일 모범 수용자의 가족을 초청하여 250여명의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수용 생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가족 관계회복 및 유대 강화에 기여하였다.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해남교도소는 4월 20일 제 38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해남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영화 감상 및 다과를 함께 나누며 장애수용자들을 격려함으로써 수용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또한 장애수용자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장애수용자 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아근 직원에게 특별 간식 지급

정읍교도소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연휴기간에 근무하는 아근 직원을 위해 특별 간식을 지급하였다. 앞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1위에 선정된 햄버거 세트를 5월 4~7일 제공함으로써 연휴임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업무에 힘을 쏟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교정공제회

교정공제회 새싹삼 판매 온라인 쇼핑몰 오픈

교정공제회는 교정공제회 새싹삼 온라인 쇼핑몰인 '교정 새싹삼'을 오픈하였다. 교정공제회가 직접 생산하는 새싹삼은 친환경 농법으로 수경 재배하여 흙이 묻어나지 않으며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에도 불검출 시험성적서를 받은 무농약 새싹삼이다. 주문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http://cmaamall.kr>에 접속하거나, 전화 주문 02-584-5613(내선3003)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국군교도소

제14회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국군교도소는 5월 19일 군 수용자들의 가족을 부대로 초청해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교도소 수용동에서 수용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세족식, 부모님 전상서, 위문공연, 가족과의 점심식사,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행사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군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인천구치소
교위 김효진**

안정된 수용생활 유도 및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

여성 신입수용자 입소 시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고 구치소 접견·출정 등 일과를 비롯해 고충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줌으로써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였다. 또한 인천구치소에서 추진하는 미추홀 보라미봉사단 장학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급대상자를 인근 초등학교와 협의하는 등 기관을 대표하여 분기별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위 김철한**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동 업무 철저

지난 4월 1일과 9일에 발생한 두 수용자의 자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자살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또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심적 안정을 도모해 수용자들이 성실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신상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인·인계서를 작성하여 수용자의 특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단한 연구로 효율적 업무 처리에 기여했다.



**흥성교도소 서산지소
식품위생주사보 이정희**

식품위생 업무 철저 및 지속적인 봉사활동 실천

부식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부식물 반입 시 철저한 검수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방지했다. 또한 경비교도대 건물의 직원식당 및 독신자숙소 리모델링과 직원 식당 조리실 내 바닥 개선공사 등을 제안하여 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2016년부터 매월 5,000원을 인근 독거노인에게 위문금품으로 지원하고 있다.



**목포교도소
간호주사보 이현숙**

직원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

의료과 간호 및 국가지급의약품 담당근무자로, 평소 수용자에 대한 정확한 처방관리와 수용자 처치 및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업무처리로 교정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 국가지급 의약품과 직원약품 상비 및 지급, 재고관리로 직원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원 애경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직원간의 화합에도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다.

모범공무원입니다
소개합니다

희망을 안고 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월간 <교정> 6월호 교정스타그램에서는 희망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그리며 일상을 살아가는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체험으로 간직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희망을 함께 공유해 보세요.

11:11 100%

세 살 버릇 여든까지

❤️ Q ▾

김태현 교사 안동교도소

세 살 된 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게 하기 위해 태극기를 새로 장만하였습니다.

11:11 100%

행복을 그리다

❤️ Q ▾

권동환 교사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우리 가족은 주말에 동물원을 다녀왔어요. 동물원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 친구들도 만나며 가족들과 행복을 만끽했어요. 이런 순간들을 그리며 사는 게 희망 아닐까요?

11:11 100%

개나리와 함께

❤️ Q ▾

서정호 교사 대구교도소

노랑게 피어난 개나리 같이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맞잡은 아이들을 보며, 개나리의 꽃말과 같은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11:11 100%

꽃들에게서 희망을

❤️ Q ▾

곽명재 교사 대구구치소

출근길 주차장에서 마주한 꽃 한 송이. 흠 한 줄 없는 아스팔트 사이에 뿌리내려 힘들게 살아있지만 그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모습은 나 자신의 잘잘못에 대해 나 자신보다 주변 환경을 탓하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이 피듯 우리 사회에 그 어디에도 희망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11:11 100%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지지만 발걸음은 가볍게

❤️ Q ▾

강인석 교사 진주교도소

2018년 6월은 새롭게 느껴지는 달이다. 나의 2세인 사랑스러운 공주 강서연이 내가 사는 세상을 처음 구경한 달이며 또한 한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 부모님께 효도한 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의 희망인 서연이가 태어나면서 한 가장으로서 어깨는 무겁지만 출근할 때는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발걸음은 가볍다.

11:11 100%

희망을 심다

❤️ Q ▾

강민승 교사 부산교도소

우리 기관에 행복 농장이라는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직접 옥수수, 딸기, 감자 등 여러 가지 농작물을 직접 심고 물을 주며,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니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딸아이는 유치원에서 키우던 강남콩을 옮겨 심으며 "공주야 이쁘게 잘 자라"라고 말하네요. ^^ 물을 주는 큰 아이에게 동생이 자기도 주겠다고 지켜보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교정 스타그램에 참여해주세요.

교정 스타그램은 <교정>을 아끼는 교정공무원과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매 호 정해진 주제에 어울리는 사진과 짧은 문구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기프트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의 테마 컬러는 'ORANGE', 주제는 '활력'입니다'

'활력'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1MB 이상)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문의 : 02-2110-3461) / 소속, 직급, 이름, 휴대폰 번호 必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람중심, 이용자 위주의 혁신적인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조사기간 **2018.7_2019.12** 16개월간
조사대상 화재안전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천개동
조사방법 소방, 건축, 전기 등 전문 조사반의 현장조사

01 건물 안전 실태 조사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화재위험요인 종합조사

02 화재 위험성 평가
화재안전 점검결과 분석 위험성 평가 및 DB구축

03 대국민 정보공개
국민의 안전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04 사람중심 화재안전기준
건축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화재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월간 교정 이벤트

#1

특별함으로 간직될 일상을 선물합니다



긴장으로 가득한 나날을 벗어나 딱 하루라도 문화를 즐기며 힐링하고 싶다면? 월간 <교정> '어느 멋진 날'에 초대합니다.

3인 이내의 동료직원과 함께 신청해주세요.
공연 관람의 기회와 간식 일체를 제공합니다.

#2

자녀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보세요

바쁜 일상으로 자녀와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면, 월간 <교정> '아빠! 어디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가족이 함께 즐거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거주지 주소와 참여할 가족의 인원수를 꼭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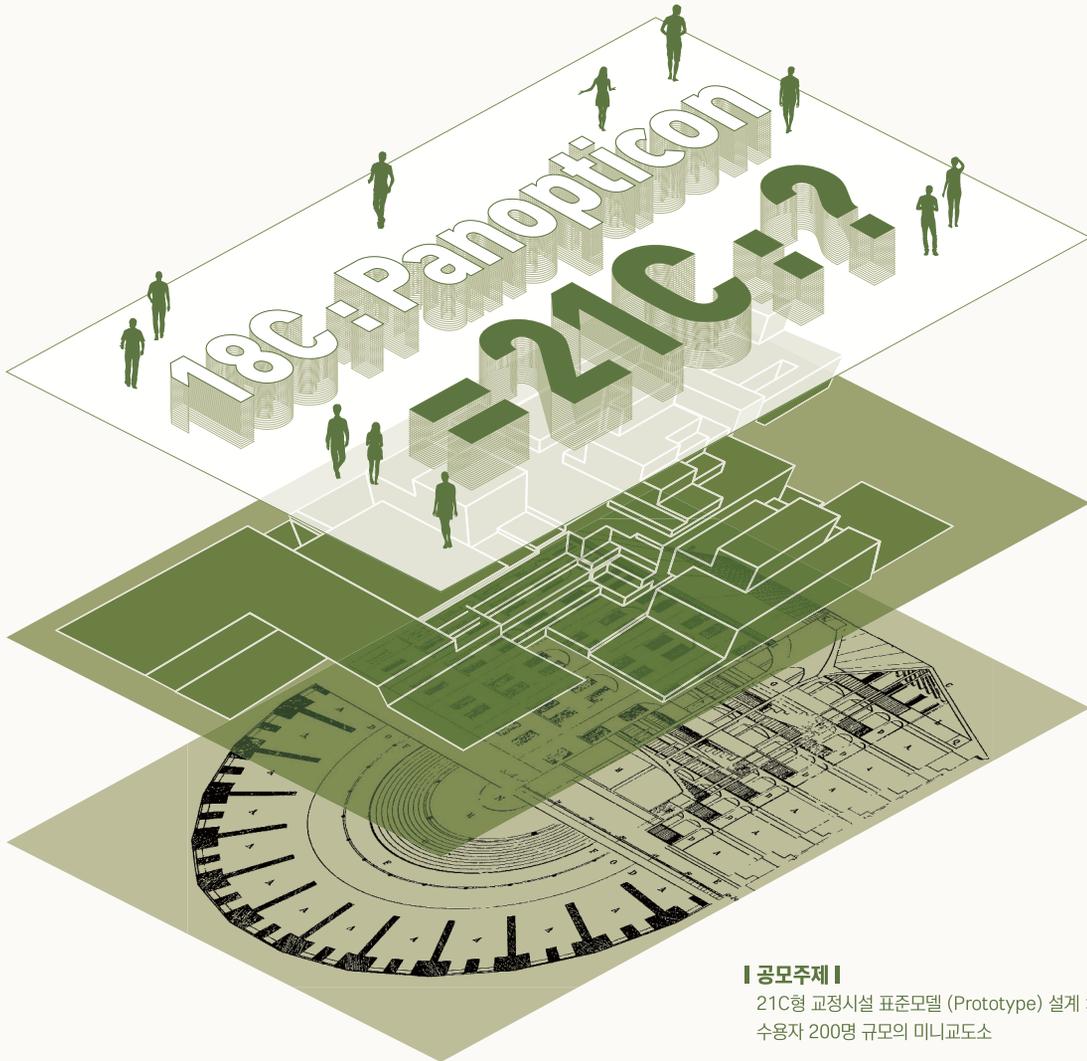
접수 방법

1. 간단한 신청 사연을 적어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로 보낸다.
(소속, 직급, 이름, 전화번호 필수!)
2. 당첨 전화가 오면 즐겁게 받는다.

* 특별한 날이 더욱 오래 기억되도록, 기념사진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교정>에 실어드립니다.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2018. 6. 5. - 8. 16.



공모목적

미래가치를 반영한 사람 · 교정철학 ·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교정시설 표준모델 아이디어 설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참조

공모주제

21C형 교정시설 표준모델 (Prototype) 설계 :
수용자 200명 규모의 미니교도소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1팀 3인 이내)

공모일정

공모기간 : 2018. 6. 5.(화) ~ 8. 16.(목)
참가접수 : 2018. 6. 5.(화) ~ 7. 5.(목)
작품등록 : 2018. 8. 16.(목) 10:00 ~ 17:00 / 방문등록
결과발표 : 2018. 9. 5.(수)
시 상 : 2018. 10. 26.(금)
※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공모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시상내역

총상금 940만원(6팀)
대 상(1팀)_ 법무부장관상 + 상금 400만원
최우수상(1팀)_ 법무부장관상 + 상금 200만원
우 수 상(2팀)_ 법무부장관상 + 상금 100만원
장 려 상(2팀)_ 법무부장관상 + 상금 70만원